

“함께, 성경 듣고, 읽읍시다!”

3월 4일부터 '공동체 성경읽기' 시작 새벽기도회, 순 공동체, 개별 모임

3월 4일부터 '공동체 성경읽기'를 시작한다. 이번 공동체 성경읽기는 '공동체 성경읽기 새벽기도회', '순 공동체 성경읽기', '공동체 성경읽기 개별 모임'으로 구성된다.

'공동체 성경읽기 새벽기도회'는 3월 4일 서빙고온누리교회 2부 새벽기도회에서 시작된다.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6시 30분 서빙고온누리교회 비전홀에서 진행된다. 5분 찬양, 15분 공동체 성경읽기, 5분 메시지, 5분 합심기도 등의 순으로 새벽기도회가 이어진다. <우리말성경>으로 신구약 함께 읽기를 할 예정이다.

'순 공동체 성경읽기'는 온누리교회 모든 공동체와 순에서 실시한다. 순 단위로 SNS 단체대화방을 개설해서 공동체 성경읽기 링크를 공유

한다. 유튜브 '공동체 성경읽기' 채널에서 그 날짜의 성경 읽기를 시청하고, 링크를 공유하면 된다.

누구든지 먼저 그 날짜의 성경읽기에 접속한 사람이 링크를 공유하면 된다. 다락방장이 각 순의 공동체 성경읽기 단체대화방에 참여해서 순장과 함께 그 날짜에 링크가 올라오는지를 확인한다.

'공동체 성경읽기 개별 모임'은 소규모로 일주일에 한번 모여서 공동체 성경읽기(40분), 나눔(20분), 신앙서적 읽기(30분), 소그룹 나눔(30분), 식사 교제(60분)를 한다. 우선 서빙고온누리교회부터 시작하고, 다른 캠퍼스로 확대할 예정이다. 공동체 성경읽기 개별모임은 3월



<신청 QR>



15일부터 6월 28일까지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 서빙고온누리교회 민음홀에서 한다. 회비는 식대 포함

10만 원이다. 공동체 성경읽기 개별 모임 참여를 희망하는 성도들은 구글폼(QR 참고)으로 신청서를 작성

해서 제출하면 된다.

문의: 02-3215-3239

/ 홍하영 기자 hha0@onnuri.org

5월 15~16일 러브소나타 효고 '회복'

15일 세미나와 가스펠나이트, 16일 리더십 포럼과 집회

러브소나타 효고가 '회복' (행 3:20)을 주제로 5월 15일과 16일 고베 문화홀 대홀에서 올려퍼진다. 15일(수) 세미나와 가스펠나이트(한일연합성령집회), 16일(목) 리더십 포럼, 러브소나타 집회가 이어진다. 고베 동부교회에서 열리는 세미나에서는 이기원 목사(회복사역본부장) '회복', 다카미자와 에이코 목사(몽골 키즈홈 서포터즈 대표, 일본 로잔위원) '사명'을 주제로 강의한다. 같은 날 오후 7시 고베 문화홀 대홀에서는 가스펠 나이트가 열린다. 스즈키 마

사야 전도사(청소년 사역자)가 말씀을 전하고, 웅기장이, LOVE OBI, 잇배 재팬이 게스트로 출연한다.

5월 16일(목) 오전에는 고베 메리켄파크 오리엔탈 호텔에서 리더십 포럼을 개최한다. 가네코 미치히토 목사(일본 참의원, 사회복지법인 '굿·사마리안' 이사장)가 강의한다. 러브소나타 집회는 오후 7시 고베 문화홀 대홀에서 막 오른다. 이재훈 위임목사가 설교하고, 온누리 사랑챔버 오케스트라, 조해련, 루나, 범키, 소프라노 김영미, 테너 배재철, 크록

스 Lalo 등이 게스트로 출연한다. 집회 실황을 온누리교회 및 러브소나타 유튜브 채널에서 생중계한다.

러브소나타 효고 관심이 벌써 뜨겁다. 참가신청이 이를 만에 마감됐다. 대기신청을 원하는 성도들은 러브소나타 본부(02-570-7415)로 문의하면 된다.

일본 '효고현'은 간사이 지방에 있는 주요 항구 도시다. 오사카, 교토와 함께 일본의 경제 및 문화 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다.

문의: 02-570-7415

플라스틱 소비 줄이고, 창조질서 회복하고!

3월 31일까지 '사순절 창조질서 회복캠페인'

2024 사순절 창조질서 회복캠페인 '바이 바이 플라스틱'이 3월 31일(일)까지 이어진다. 이번 캠페인에서는 '성찰하기'와 '실천하기'에 참여하면 된다. 2월 14일(수)부터 3월 7일(목)까지는 '성찰하기' 기간이다. 이 기간에는 '내 일상의 플라스틱 사용량은?'을 주제로 플라스틱 사용량을 확인하고, 사진으로 찍어서 기록하면 된다. 3월 8일(금)부터 3월 30일(토)까지는 '실천하기' 기간이다. 이 기간에는 '플라스틱 사용을 줄일 수 있을까?'를 주제로 실제 플라스틱 줄이기를 실천하고 사진으로 찍어

기록하면 된다.

4월 7일(일)까지 '성찰하기'와 '실천하기' 기간에 찍은 사진과 소감문(A4 한 장 이내)을 이메일(onnuri.lent@gmail.com)로 보내면 온누리교회 SNS와 <온누리신문>에 그 내용을 게재한다.

차세대 그림 대회 및 전시회도 개최한다. 4월 14일까지 창조질서 회복 관련 A4용지 한 장 크기의 그림을 그려서 이메일(onnuri.lent@gmail.com)로 보내면 된다. 그림은 5월 5일 서빙고온누리교회 이천만광장에 전시한다.

온라인커뮤니티 2024년 상반기 개강

3월 26일부터 매주 화 오후 8시 온라인

온라인커뮤니티(이하 온라인커뮤니티) 2024년 상반기 개강을 한다. 3월 26일(화)부터 6월 25일(화)까지 매주 화요일 오후 8시 온라인(Zoom)으로 진행된다. 참여를 원하는 성도들은 온누리교회 홈페이지(onnuri.org)에서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커뮤니티는 20세 이상 온누

리교회 성도 중에서 여러 사정으로 공동체 활동이 어려운 이들을 온라인으로 돌보는 공동체다. 이번 학기 온라인커뮤니티에서는 임영광 목사(풍당제작본부장)가 기독 OTT '풍당' 콘텐츠 제작과 활용에 대해 강의한다. 5월에는 보이는 라디오 '슬기로운 말씀 생활'을 선보일 예정이

다. 주영희 성도(온라인커뮤니티, 태국 거주)는 "해외에서 현지인 교회를 다녔는데 말도 잘 통하지 않고, 혼자 신앙 생활하면서 늘 공동체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는데, 온라인커뮤니티 덕분에 함께 예배하는 기쁨과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느낄 수 있었다"고 고백했다.

문의: 카카오톡채널

'온누리 온라인커뮤니티'

교사,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들!

3월 6일 '차세대 교사 부흥집회' 양재 사랑홀

차세대 교사 부흥집회가 '교사,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들'을 주제로 3월 6일(수) 오후 7시 30분 양재온누리교회 사랑홀에서 막 오른다. 차세대 교사 부흥집회 '교사,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들'은 파워스테이션의 찬양, 강부호 목사(양재온누리교회 담당) 설교, 합심기도 등의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차세대 교사와 부모, 다음세대를 위해 기도하고 싶은 성도라면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A Bold Witness for Christ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

주일강단



이재훈 위임목사

기도를 배우는 세 가지 길이 있습니다. 첫째, 기도함으로써 배웁니다. 기도에 관한 많은 책을 읽고, 세미나를 듣는다 할지라도 개인이 직접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를 배울 수 없습니다. 실제 기도함으로써만 배울 수 있습니다. 둘째, 다른 성도들의 기도를 듣고 배웁니다. 어린 자녀가 가정에서 부모의 언어를 들으면서 배우듯이, 기도 또한 믿음의 삶을 사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음으로써 배웁니다. 셋째, 함께 기도함으로써 배웁니다. 이것은 개인이 기도하는 것이면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는 것이고, 성령님의 임재가 임할 때 기도를 배우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난 제자들의 모습에서 주목할 것은 그들이 함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선물, 곧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셨을 때 그들이 함께 모여 기도했습니다. 유다를 대신할 사도를 세우는 과정에서 그들이 함께 기도했습니다. 오순절 성령이 임하시고 난 이후 그들은 더욱 힘 있고 강하게 함께 기도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마무리 부분에서도 성전 문 앞에서 있었던 기적의 파장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놀라운 기적으로 사람들이 물려들었고, 베드로가 물려든 회중에게 회개를 호소하며 설교했고, 남자만 4천 명 이상 회심했습니다. 또 한편의 파장은 그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가로 막으려는 이들의 움직임입니다. 대제사장 가야바, 요한, 알렉산더, 사두개인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가두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지 못하도록 가두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그 어떤 권세자의 위협도 진실을 가둘 수 없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풀려났고, 그들이 교회 공동체에 일어난 일을 함께 나누고, 대제사장으로부터 받았던 위협까지 모두 전했습니다. 그때 그들이 함께 소리 높여 기도했습니다(24절).

기도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영적 능력

베드로와 요한의 보고를 듣고 함께 소리 높여 기도한 것은 그들이 풀려난 것을 기뻐하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고난과 핍박에서 벗어나게 해 달라는 기도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위협하는 대적자들이 망하게 해 달라는 기도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기도는 어떤 위협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주의 말씀을 전하게 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29절).

그 사람이 무엇을 믿고 있는지를 알려면 기도 내용을 보면 됩니다. 무엇을 기도하는지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주의 말씀이 담대하게 전파되는 것을 소리 높여 기도하는 것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과 복음의 능력 그리고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믿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 세상의 고난과 유혹이 우리를 쓰러뜨리는 것 같지만, 실상 우리를 쓰러지게 만드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기도의 힘이 사라지고, 기도가 우리 삶 속에서 능력을 잃어버렸기에 고난과 유혹 앞에서 쓰러지는 것입니다. 외부의 고난과 유혹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안에 그것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영적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 능력은 기도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습니다. 사도들이 기도를 통해 영적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들이 위기 속에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기도한 모습이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기도해야 할지를 보여줍니다. 복음이 전해지기 위해서는 합심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복음이 증거되는 사명을 위해서는 합심해서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들이 함께 성령의 임재를 위해서 기도했고, 사도들을 세우는 일에도 함께 기도했습니다. 또 말씀과 교제를 나누며 함께 기도했고, 주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기 위해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들은 다가오는 핍박으로부터 피할 길을 구하지 않고, 핍박을 견디고 이기는 담대함을 구했습니다. 다가오는 핍박에 대해 그들의 입이 다물어지지 않고 더욱 열리기를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성령 안에 있는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합심기도의 능력은 함께 소리 높여 기도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과 나만 아는 은밀하고, 조용하고, 친밀한 기도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때로는 깊은 고요함 속에서 침묵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공동체가 함께 소리 높여 간절히 기도하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 가운데 소리 높여 기도 했던 몇 사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두 깨어

진 마음이었습니다. 노헤미야가 성벽이 무너진 고국의 현실을 보면서 깨어진 마음에서 소리 높여 기도했습니다. 예레미야가 성전이 훼파되고, 나라의 주권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능욕 받는 것을 보며 깨어진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바울도 복음을 증거하며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영혼들을 위해서 깨어진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예수님도 겟세마네에서 제자들에게 합심기도를 요청한 때가 있었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 함께 기도하기를 요청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깨어 있지 못했습니다. 합심기도는 쉬운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고 하셨는데 왜 두세 사람입니까? 두세 사람이 합심해서 소리 높여 기도하는 게 어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함께 소리 높여 기도하는 것과 깨어진 마음은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에서 나옵니다.

합심기도의 신앙적 기초는
‘창조주 하나님의 주권’

그들이 함께 소리 높여 기도할 때 창조주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들이 소리 높여 함께 기도할 때 하늘과 땅,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의 주권이 여전히 역사하고 있음을 선포했습니다. 모든 기도의 가장 중요한 토대는 창조주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은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인간의 죄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반역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반역한 무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셨습니다. 세상의 통치자들은 그분을 대항하고, 그분이 보내신 이를 대적하며,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기도에서 고백하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창조주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과 섭리 가운데 있다는 고백입니다.

“주의 능력과 뜻에 의해 미리 정하신 일을 그들이 단지 이룬 것뿐입니다”(28절).

여러분, 우리의 기도 속에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밑바닥에 깔려 있어야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고, 세상을 통치하시며 섭리하시고, 세상의 그 어떤 세력과 악한 무리들도 창조주 하나님의 주권에서 벗어날 수 없고,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구원하시고,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항할 이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소리 높여 기도하는 근거입니다. 합심기도의 중요한 신앙적 기초는 창조주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도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의식해야 합니다. 하

나님과 우리의 기도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함께 기도하는 것은 단지 의무가 아닙니다. 놀라운 특권입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난 성도들의 합심기도는 하나님께 단지 도움을 얻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과 동역자가 되는 기도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도움을 얻기 위해 기도하며 나아가 합니다. 우리는 연약한 피조물이고, 우리의 필요를 구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도움을 얻기 위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성도들은 기도하면 할수록 점점 하나님의 주권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변화합니다. 그래서 기도가 바뀌는 것입니다. 서서히 바뀔 수도 있고, 일시적으로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 마음이 뒤집어져서 바뀔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움과 필요를 구하고, 기도하는 영혼들을 이끄셔서 〈사도행전〉에 나타난 제자들처럼, 함께 소리 높여 기도하는 동역자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주의 말씀이 담대하게 전해지는 것입니다.

함께 모여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

30절을 보면, 그들이 유명해지고 인정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복음이 전해지기 위해서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이 많은 표적과 기사를 행하신 것도 사람들이 복음을 믿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를 해 보십시오.

“이 치유의 기적을 통해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주권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놀라운 표적과 기사를 허락하실 수 있습니다.

31절을 보면, 그들이 함께 합심해 소리 높여 기도했을 때 더욱 성령으로 충만해졌습니다.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고 충만해지는 깊이가 더 해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성도들이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합심해서 소리 높여 기도할 때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 징표가 바로 모인 곳이 진동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들이 모인 곳이 진동하는 것처럼, 우리 삶에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모여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 정리 김남원 부장 one@onnuri.org

기독교 세계관으로 살아가기 - 재물

자족하는 마음, 단순한 삶

“돈을 사랑하지 말고 지금 갖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십시오. 주께서는 친히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않겠고 ...’”(히 13:5).

돈만큼 사람들의 삶과 밀접하게 연관된 게 또 있을까?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시간을 돈벌이하기 위해 쓰는가. 번 돈을 어떻게 쓰고, 남은 돈은 어떻게 저축하며, 투자할지를 결정하는데 시간을 사용하는지를 보면 안다. 가정과 기업은 물론 정부, 사회 기관, 학교 그리고 교회에서도 돈은 반드시 필요하고, 질과 생산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돈은 ‘힘’이다. 대학을 예로 들면, 2만 개 넘는 전 세계 대학 순위에서 상위 50위 안에는 미국의 사립 명문 대학이 매년 반 이상을 차지한다. 돈이 많을수록 순위가 높다는 증거다. 그중에서도 하버드대학은 돈이 가장 많은 대학이다. 세계 최초의 대학이 1천여 년 전 유럽에서 태어났다. 하지만 1900년대 들어 몇몇 대학을 빼고 미국 대학들에 많이 뒤처지게 된 이유가 돈 때문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돈에 관한 이야기는 너무 광범위해서 쓰기가 어렵고, 개인적으로도 쓰기가 두렵기까지 하다. 큰 차이가 있는 두 가지 상반되는 관점을 항상 접하며 살아가기 때문이다. 세상적 관점은 ‘내 돈은 내가 번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사용하면서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성경적 관점은 ‘우리는 충실한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돈을 다룰 뿐이고 그럴 때만 자족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의 생활지침서인 성경은 돈에 대해 얼마나, 어떻게 가르칠까? 수적으로 보면, 예수님은 기도에 대해서 500구절, 믿음에 대해서 500개 조금 안 되는 구절을 말씀하셨다. 그런데 돈과 재물에 대해서는 2350개 이상의 구절을 말씀하셨다. 돈이 우리 생활에 미치는 영향력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돈은 좋은 것인가 나쁜 것인가? 돈은 좋은 것이다. 그러나 최고의 선은 아니다. 최고의 선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신학자 리처드 포스터에 의하면 성경에는 돈에 관해 두 가지 흐름, 어두운 면과 밝은 면이 있다고 설명한다(리처드 포스터 저 <돈, 섹스, 권력>). 그는 “돈에 대한 우리의 자세는 이 두 가지 면을 잘 이해하는 데 있다”고 말한다. 그런데 성경에서 돈은 악이라는 말씀이 선과 관련된 것보다 훨씬 분명하고 직선적이다. 돈은 그 자체로 생명력을 가진 힘이다. 그러나 자주 악마적인 힘을 가진다고 가르친다. 몇 구절만 인용한다.

“돈을 사랑하는 것은 모든 악의 뿌리다 ...”(딤후 6:10), “한 종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눅 16:13), “... 너희는 조심해서 모든 탐욕을 삼가라! 사람의 생명이 그 재산의 넉넉함에 있는 것이 아니다”(눅 12:15), “...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마 19:24).

부자와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받았을 충격이 매우 컸을 것 같다. 모든 부와 재물

을 가졌던 솔로몬왕의 말씀은 우리가 자족해야 함(전 5:10)을 체험으로 말해준다.

돈의 밝은 면이 무엇인가? 리처드 포스터는 역설적으로 “돈은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갈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기에 긍정적”이라고 말한다. 세리인 삭개오가 재산의 상당 부분을 가난한 자를 위해 쓰겠다고 말했다고 했을 때 예수님이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도다”고 기뻐하셨다. 선한 사마리아인도 강도 만난 이웃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돈을 후하게 썼을 때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었다.

돈의 어두운 면과 밝은 면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 예수님은 “불의한 재물로 너희를 위해 친구를 만들라”(눅 16:9)고 말씀하신다. 16장 전반은 어느 불의한(약삭빠른, NIV 성경) 관리인에 대한 우화를 담고 있다. 한 부자 주인이 재산 관리인(청지기)을 불러 재산을 낭비한다는 소문에 대해 추궁하고 관리인을 해고한다. 관리인은 이때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하나씩 불러들여 빚을 탕감해 주고, 빚 문서에 낮은 금액을 적으라고 말한다. 그런데 주인은 관리인의 부정직한 행동을 보고 약삭빠르다고 오히려 칭찬한다. 리처드 포스터는 이것을 이렇게 설명한다.

“예수께서 분명히 부정직한 행동을 가지고 중요한 영적 진리를 가르치려는 것이 아니고 ... 돈을 가지고 친구를 사귀므로 돈이 없을 때 계속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돈을 사용하라, 즉 불의한 돈으로부터 멀어지기보다 그것을

불잡아 하나님 나라의 목적을 위해 사용하라는 말씀이다. 하나님은 주인이고, 돈은 하나님에게 충실한 종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다.”

크리스천의 돈에 대한 자세를 이렇게 요약해 본다. 열심히 정직하게 일해서 돈을 모으라. 그 모은 돈을 아껴 쓰고 저축하라. 그리고 저축한 돈을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을 위해 쓰라. 이는 청렴함과 절제의 정신이요, 감사함이며, 기꺼이 주는 정신이다. 이것이 단순한 삶이라 여겨진다.

여기서 故 하용조 목사님을 생각한다. 故 하용조 목사님은 복음을 위해서는 돈을 아끼지 않으셨다. 그 결실이 해외 선교, 러브소나타, CGN, 한동대학교다. 그러나 돈 자체에 대해서는 무덤덤함이었다는 생각을 지금 와서 하게 된다. 그 무덤덤함 속에서 평신도들에게도 사역을 맡기셨다. 다음 구절로 글을 맺는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명한 것같이 조용한 삶을 살며 자신의 일을 행하며 여러분의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는 것입니다. 이는 여러분이 외부 사람들에 대해 품위 있게 행동하고 또한 아무 것도 궁핍함이 없게 하려는 것입니다”(살전 4:11~12).



윤영섭 장로
(서빙고공동체, 고려대
경영대학 명예교수)

온누리호스피스학교 수료 간증

호스피스를 배우고, 느끼고

온누리호스피스스쿨 전문 봉사자 교육 조장을 맡은 이금아 권사님의 소개로 호스피스학교에 신청하게 됐다. 나는 현재 안산의 한 요양병원에서 매주 예배를 인도하고 있다. 호스피스 교육과 요양병원 사역이 연결돼 있다고 생각해서 참여했다.

호스피스학교 강의를 들으면서 ‘림프 마사지’라는 것을 새롭게 알게 됐다. 그동안 몰랐던 새로운 방법을 알아 간다는 게 정말 흥미로웠다. 호스피스학교에서 알게 된 내용을 실습하면서 직접 경험할 수 있었고, 나에게도 적용할 수 있어서 좋았다.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 림프 마사지를 하면서 하루를 시작한다.

요양원을 두 번 방문해서 어르신들을 섬긴 것은 강의 외에 또 다른 소중한 경험이었다. 첫 번째 방문할 때는 조금 어색했지만, 두 번째 방문에서 조금씩 나아졌다. 나는 요양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전하는 일을 담당했다. 어르신들과 함께 <시편> 23편을 본문으로 은혜를 나눴다.

“여호와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



“온누리호스피스학교는 사별자를 이해하고, 위로하는 방법을 배우는 감사한 시간이었다.”

우리보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월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데도 내 영혼을 소생 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데도”(시 23:1~3).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어르신들의 음성이 큰 감동으로 다가왔다. 이 시간을 통해 어르신들에게 영적인 도움도 많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요양원 실습의 하이라이트는 ‘음악사역’이었다. 구수하고 정겨운 옛 멜로디를 들으면서 어르신들이 과거를 회상하고, 가사를 따라 부르시는 모습이 기억에 선하다.

‘사별자 이해하기’ 시간은 나에게 실제적인 도움이 되었다. 요양원에서 일하고 있기에 사별자들을 만날 기회가 많다. 그들을 만났을 때 어떻게 말해야 하고, 어떻게 위로해야 하는

지를 배우는 시간이었어서 감사했다. 사별자를 이해하기 전에 호스피스에 관심을 가지는 자로서의 정체성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느꼈다. 죽음과 사별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시간도 가져서 유익했다.

호스피스학교에 참여하면서 사별자 프로그램에 더욱 관심이 생겼고, 더 많이 배우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전체적으로 다소 무거운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전문 강사님들이 강의를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한 마음으로 참여할 수 있었다. 호스피스학교에

서 배운 강의와 실습을 통해서 폭넓은 경험을 했고, 하나님의 사람들과 즐겁게 배우고 교제할 수 있어서 감사했다.

문의: 010-3412-7966



이재목 목사
(안산 아너스요양병원)

“바울로부터 배우십시오”

바울의 여정 따라 6개국을 걷다 ‘최종상 선교사’

선교 미디어 CGN이 기독교 OTT ‘풍당’ 론칭 3주년을 기념하는 다큐멘터리 ‘바울로부터’를 제작했다. ‘바울로부터’는 총 10부작으로 사도 바울의 일대기를 다뤘다. 최종상 선교사와 배우 차인표 집사가 바울의 여정을 따라 이스라엘, 튀르키예, 키프로스, 그리스, 몰타, 이탈리아 등 6개국을 걸었다. 바울 전문가인 최종상 선교사의 생생한 설명이 더해져 호평이 쏟아지고 있다. 지난 2월 27일(화) 최종상 선교사를 만났다. 그에게 ‘바울로부터’ 제작 뒷이야기와 크리스천과 한국 교회가 왜 바울을 주목해야 하고, 바울에게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를 들었다. 다음은 그와의 일문일답.

/ 김현준 기자 khj@onnuri.org



오래 준비하고 제작한 다큐멘터리 ‘바울로부터’ 반응이 대단합니다.

“정말 많은 크리스천이 다큐멘터리 ‘바울로부터’에 관심 가져 주시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다큐멘터리 ‘바울로부터’는 2년 반 전부터 열심히 기획하고, 준비했습니다. 그 아름다운 여정이 훌륭한 영상으로 담겨서 정말 기쁩니다.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작은 한 걸음을 내디뎠을 뿐인데, 하나님이 더 큰 계획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다큐멘터리 제작 과정에도 하나님이 동행하셨습니다.”

제작 과정에서 에피소드가 많았을 것 같습니다.

“2023년 4월 10일, 출국을 6일 앞둔 때였습니다. 첫 번째 방문하려던 그리스에서 촬영 허가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급하게 주한 그리스대사님께 편지를 썼습니다. 답장이 왔는데, 한 참사관을 만나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참사관님이 나서서 모든 허가를 도와주셨습니다. 정말 밤낮없이 힘써주셨습니다. 그리스에서 온 답변서도 그분이 자발적으로 번역해서 전달해주셨습니다. 그분 덕분에 모든 허가가 순조롭게 이뤄졌습니다. 나중에 그 참사관님이 어떻게 그 일을 했는지 모르겠다고 고백하셨습니다. 문화재 관리국과 그리스 외무부도 그 일을 다시 하려면 못할 것 같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붙여주신 천사 같았습니다.”

차인표 집사님은 이름만 알던 분이었습니다. 촬영하러 갈 때가 두 번째 만남이었습니다. 차인표 집사님은 매우 진솔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배려심이 깊습니다. 현지 날씨가 너무 덥고

햇빛이 강했는데, 저에게 계속 양산을 씌워줬습니다. 20분마다 선크림을 발라주기도 했습니다. 정말 겸손하고, 신앙에 진지한 분이 연에게에 있고, 선한 영향력을 주고 있어서 하나님께 참 감사했습니다. 정말 좋은 친구, 정말 좋은 동역자를 얻었습니다.”

바울을 따라 걷는 그 여정 자체가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다양한 나라에서 촬영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2차 촬영할 때는 보름 동안 5개국을 옮겨 다녔습니다. 촬영 시간이 빠듯해서 마치자마자 짐을 싸서 공항으로 달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비행기를 놓치거나 늦은 일이 없었습니다. 그 힘든 일정에도 누구 하나 아프지 않은 것도 큰 은혜입니다. 누구도 힘들어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스태프가 화목하게 잘 지냈습니다. 아마 매일 아침 했던 기도 모임이 큰 힘이 된 것 같습니다.”

또 저희가 방문한 빌립보, 고린도, 아테네 지역은 항상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갔을 때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고난 주간이어서 문을 닫았기 때문입니다. 참사관님 도움으로 촬영팀에게만 문을 열어줬습니다. 에베소 촬영에서는 하나님이 감독님에게 하늘의 지혜를 주셨습니다. 보통은 정문으로 입장하는데, 그날 관광객 수천 명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후문에서 촬영을 시작했습니다. 그 덕분에 사람이 한 명도 없는 ‘에베소 대연극장’을 촬영할 수 있었습니다. 또 유명한 곳이 ‘켈수스 도서관’인데, 그곳에서도 사람이 없는 상태에서 촬영했습니다. 촬영을 마치자마자 수천 명의 관광객이 몰려왔습니다.”

바울의 행적을 따라 6개국을 걷은 소감이 무척 궁금합니다.

“저는 오랫동안 바울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촬영했던 지역들을 몇 번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촬영에서 이 멀고 힘든 여정을 걸어 다녔던 바울의 상황을 깊이 체험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4절에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라고 쓰여 있습니다. 한 문장이지만 버가와 비시디아 안디옥 사이를 최고 3,916m에 이르는 높고 거대한 토로스산맥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 산맥을 넘어가려면 200km가 넘는 거리를 걸어야 합니다. 당시에는 야생 동물과 강도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복음이 필요한 영혼들을 위해 그 길을 담대히 갔습니다. 그 길에서서 촬영하면서 ‘바울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걸어 다니며 복음을 전했을까?’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바울을 존경하지만, 당시 그는 핍박받고 오해를 받았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오직 자기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신 하나님 사랑에 감사하고, 복음을 확신했다는 것을 생생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크리스천들이 바울을 주목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더불어 한국 교회가 바울의 어떤 점을 배워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시기적절하게 다큐멘터리 ‘바울로부터’가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바울은 다면적인 초상을 가진 사람입니다. 바울은 선교사, 목회자, 교회 개척자, 신학자, 저술가, 심지어 탐험가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가장 중요한 면모는 전도자입니다. 바울의 다양한 정체성의 뿌리는 전도자입니다. 전도자에서 다른 것들이 파생된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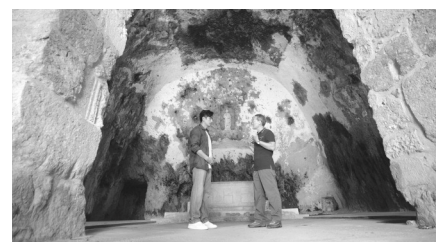
오늘날 한국 교회가 “전도하기 힘든 상황이다”, “교회 개척은 꿈도 꾸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바울을 보십시오. 그 시대가 훨씬 어렵고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식민지인 유대 사람이 그들을 300년 동안 다스린 로마 제국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것을 한국 교회에 적용하면 전도하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전도하지 않는 게 문제입니다.

더불어 종교개혁 이후 믿음은 강조했지만, 삶을 강조하지 못했습니다. 균형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신칭의 그리고 행위와 선한 삶을 강조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9절에서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

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여기까지만 이해합니다. 그런데 바로 10절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고 했습니다. ‘바울로부터’ 배우십시오. 믿음과 삶이 일치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입니다.”

다큐멘터리 ‘바울로부터’ 시청자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다큐멘터리 ‘바울로부터’를 시청하면서 세가지를 얻으십시오. 첫째, 바울에 대해서 많이 배우십시오. 둘째, ‘바울이 훌륭한 사람이다, 영상을 참 잘 만들었다’고 말하고 끝내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넘어서서 ‘나는 바울로부터 무엇을 배워야 할까?’, ‘내 삶과 우리 교회는 무엇이 달라져야 할까?’를 생각하십시오. 셋째, 바울을 공부해서 여러분 것으로 만드십시오. 다큐멘터리 ‘바울로부터’에서는 바울의 삶과 사역을 출생부터 순교까지 시간순으로 설명했습니다. 베뢰아 성도들처럼 <사도행전>, 바울 서신과 함께 ‘바울로부터’를 보시고, 공부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로부터’ 스틸컷.

최종상 선교사는?

-런던신학대학 B.A, PhD
: 로마서 전공
: 박사논문 Paul as Apostle to the Gentiles (‘로마서: 이방인의 사도가 전한 복음’, 2012)
-독일 튀빙겐대학 & 영국 더럼대학에서 연구
-영국 글로스터대학교 신학부 객원교수
-영국 이스트버리교회 담임목사(1997~2004)
: 현직인 대상
-영국 암노스유럽선교회 설립(2011)
-영국 복음주의연맹 한 백성위원회 위원(2012~현재)

정기후원 약정행사 앞두고

NGO 더멋진세상과 친구들

파워웨이브 8명 우간다 아웃리치 다녀와

NGO 더멋진세상 정기후원 약정행사가 오는 3월 16일(토)과 17일(일) 열린다. 이날 온누리교회 예배에서 나눠주는 정기후원 약정서를 작성해서 제출하거나 전화(02-2271-2246) 또는 NGO 더멋진세상 홈페이지(abetterworld.or.kr)에서 참여할 수 있다.

NGO 더멋진세상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친구들과 함께 지구촌 곳곳에서 소외된 이웃들을 섬기고 있다. 긴급구호 및 난민지원, 더멋진마을 조성, 취약계층 생명 살리기, 다음세대 희망 심기 등의 사업을 하고 있다. NGO 더멋진세상은 함께하는 친구들이 있어 늘 든든하다. 그 첫 번째 친구는 온누리교회 차세대 '파워웨이브' 다.

/ 홍하영 기자 hha0@onnuri.org

온누리교회 차세대 파워웨이브(이하 파워웨이브)가 NGO 더멋진세상과 함께 '더 멋진 세상' 만들기에 동참했다. 지난 1월 30일부터 2



온누리교회 차세대 '파워웨이브'가 우간다 난민촌 부드리마를 유치원에 벽화를 그리고 있다.

월 6일까지 NGO 더멋진세상 우간다 지부로 아웃리치를 다녀왔다. 중학생 2명, 고등학생 3명, 교사 2명, 교역자 1명이 우간다 북부 남수단 난민촌 부드리마를 방문했다. 그곳에서 3일 동안 어린이 300명을 대상으로 캠프를 열었다.

어린이 캠프는 우간다의 'New Nations

Church'와 'St. Peter Church'에서 진행했다. 파워웨이브가 준비한 율동 찬양과 무언극이 캠프의 포문을 열었고, 백미는 난민들 상황에 맞춰 복음을 전하는 메시지였다. 부채 만들기, 종이비행기 만들기 등 그룹 활동과 제기차기, 공 굴리기 등 야외 활동도 했다. 난민촌을 방문해서 소외된 이웃들을 살피고, NGO 더멋진세

상이 난민들의 생계를 위해 운영 중인 양계장과 재봉 교실에도 방문했다. 부드리마를 유치원에 벽화를 그리기도 했다.

파워웨이브 우간다 아웃리치는 NGO 더멋진세상에서 실시하는 '우간다 지부 난민지원 사업'의 일환이다. NGO 더멋진세상 우간다 지부에서는 난민지원 사업을 통해 남수단 난민촌 난민들이 만성구호의 늪에서 벗어나도록 돕고 있다. 난민들 스스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어가도록 모든 활동에 주민들이 참여하도록 하고 있다. 식수 시설도 식수위원회가 유지보수를 맡고, 재봉팀과 양계팀도 실제 비즈니스가 이루어지도록 훈련하고 관리한다.

NGO 더멋진세상 우간다 지부에서는 우간다 난민들과 현지 주민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온전한 건강회복과 안정적인 삶을 추구하며, 미래를 꿈꾸도록 다방면의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우간다에서 총체적 선교의 열매를 풍성하게 거두기를, 온전한 선교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오늘도 쉬지 않고 달려가고 있다.

문의: 02-2271-2246

아웃리치 간증

비교할 수 없는 귀중한 시간!

아웃리치를 준비하면서 기대보다 걱정이 앞섰다. 아웃리치 갈 시간이 다가오는데 완벽하게 준비된 게 없는 것 같았기 때문이다. 불안과 걱정이 앞섰다.

우간다로 가는 길도 순탄치 않았다. 비행기를 20시간이나 타고 가서 남수단 난민촌까지 10시간 넘게 버스를 타야 했다.

난민촌에 도착해서 그곳의 아이들을 만나 자마자 피곤함이 눈 녹듯 사라졌다. 아이들이 정말 사랑스럽고 예뻐다. 그 아이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준비한 사역

들을 더 잘 해내고 싶었다.

완벽해야 한다는 생각 때문일까? 실수가 더 많았다. 준비한 위식을 모두 한 번씩은 틀렸고, 무언극은 장면 하나가 빠지기도 했다. 인형극은 연습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 하나님은 부족한 속에서 최선을 만드셨다. 부족한 우리의 모습에도 현지 친구들이 웃음꽃을 피웠다. 교회에 닫혔던 마음의 문을 열었다. 무언극을 보면서 눈물 흘리는 사람들도 있었다. 우리의 준비가 부족해도 하나님이 하시면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것

을 이번 아웃리치에서 다시 한번 깨달았다.

우간다에서 본 풍경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선물'이었다. 밤에는 아름다운 별과 달이 선명하게 보이고, 낮에는 여러 동식물을 볼 수 있었다. 한 폭의 그림 같은 풍경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크고 웅장한 폭포였다. 정말 아름다워서 글을 쓰고 있는 지금도 눈앞에서 아른거릴 정도다. 그 폭포를 보면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왔다.

나는 올해 17살, 예비 고등학교 1학년이다. 선생님과 친구들이 지금 시기가 공부에 매진할 때인데 어딜 가면서 선교가는 나를 이해하지 못했다. 나를 한심하게 생각하며 꼭 가야겠냐고 핀잔을 주는 선생님도 계셨다.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면 내가 미련해 보이는 것 같다. 그러나 나는 우간다에서 하나님과 함께한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귀중한 시간을 보냈다. 나에게 그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다.

응원하며 보내주신 부모님, 모든 일정을 위해 기도해주신 많은 분께 감사하다. 우간다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함께 느끼고 증인이 된 팀원들에게도 감사하다.



김다윗 학생
(양재 고등부)

진짜 행복을 찾았다!

처음 우간다 아웃리치를 가겠다고 결정했을 때 그렇게 먼 곳인 줄 몰랐다. 사실 그런 나라가 있는지도 잘 모르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 기회에 한 명에게라도 복음을 전해보자는 마음으로 우간다 아웃리치에 참여했다.

남수단 난민촌에서 3일 동안 어린이 캠프를 했다. 종이비행기 접기, 부채 만들기, 제기차기, 풍선 불기 등을 했는데, 300명이 넘는 아이들이 몰려왔다. 현지 아이들이 좋아하는 모습을 보고 무척 뿌듯하고 기뻐다.

작은 것에도 기뻐하고 좋아하는 아이들이

이렇게 많은데, 나는 많은 것을 누리고 살면서도 감사하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어 부끄러웠다. 지금 가진 것을 만족하지 못하고, 감사하지도 않고, 세상의 명예와 더 좋은 물건, 더 높은 곳을 원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피곤하게 느껴졌다. '지금껏 최선을 즐기고, 이 순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삶이 진정한 행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어린이 캠프에서 예배를 사모하는 난민들을 보면서 많은 것을 배웠다. 집중해서 예배를 드리는 아이들의 모습이 정말 사랑스러웠

다. 열악한 환경에서도 예배드리기 위해 교회에 오는 그 마음 하나하나가 소중하게 느껴졌다. 아이들의 예배를 사랑하는 마음과 행복한 웃음이 사라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들을 위해 기도했다.

NGO 더멋진세상과 온누리교회가 하는 난민사역을 보고 감탄했다. 더 멋진 세상을 위해 정말 많은 사역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다. 이번 아웃리치를 계기로 NGO 더멋진세상을 더 알게 되었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알리고 싶어졌다.

한국에 돌아와서 세상을 다시 바라보게 되었다. 집에 들어와 화장실에서 손을 씻는데 '우리집 화장실이 이렇게 깨끗하고 좋았나?'

라는 생각이 들고, 방에 들어가 침대에 누우면서 '내 방이 이렇게 깨끗했나?' 놀라기도 했다. 먹고 싶은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사실이 행복임을 이제야 제대로 깨달았다. 작은 일에도 기뻐하고 감사하게 됐다. 진짜 행복을 찾은 것 같다. 앞으로도 이 순간을 최선을 느끼고, 간직하고, 소중한 것에서 행복을 찾는 삶을 살고 싶다.



이지호 학생
(양재 중등부)

가나의 혼인 잔치에 숨겨진 메시지

베로네세(Paolo Veronese)의 〈가나의 혼인 잔치〉
글린카(Glinka)의 ‘루슬란과 루드밀라 서곡(Opera) Ruslan and Ludmila’ Overture’



최정주 권사
(이수공동체,
아트앤뮤직 큐레이터)

루브르 박물관 모나리자 그림 앞에는 언제나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많은 인파가 몰려든다. 모나리자를 가까이서 보려다가 줄이 너무 길어서 포기하고 뒤돌아서 는 순간, 루브르에서 가장 큰 그림 (6.77m x 9.94m)인 베로네세의 〈가나의 혼인 잔치〉를 만나게 된다.

모나리자 때문에 이 작품이 홀대받는다고 하지만, 필자는 이 작품이야말로 모나리자 덕분에 우연히 많은 사람이 감상하는 매우 복 많은 작품이라고 생각한다. 더 나아가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인 가나의 혼인 잔치 포도주를 묵상하는 관람자는 더 큰 복을 받는 것이다.

〈가나의 혼인 잔치〉는 화려한 색과 역동적인 인물 표현으로 유명한 베네치아 르네상스의 화가 베로네세(Paolo Veronese, 1528~1588)의 역작이다. 풍속화 느낌이 나는 이 호화로운 작품은 베네치아 산 조르조 마조레 수도원에 걸려있던 종교화인데, 1797년 베네치아 공국이 나폴레옹에게 멸망하면서 프랑스로 오게 되었다고 한다.

성경에 나오는 가나의 혼인 잔치의 기적은 이렇다(〈요한복음〉 2장). 갈릴리 가나의 혼례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참석했고, 예수님의 어머니도 계셨다. 잔치 중에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전하고, 잔치집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고 말했다. 예수님이 하인들에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한 다음, 연회장에게 갖다주라 하셨다. 그 순간 항아리에 담긴 물이 포도주로 변했다. 연회장은 그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냈는지 알지 못했지만, 물 떠온 하인들은 기적이 일어난 것을 알았다. 연회장이 신랑에게 “통상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사람들이 취한 후에는 질이 낮은 포도주를 내는데, 그대는 지금까지보다 더 좋은 포도주를 내었구나”라고 말했다. 예수님이 이 표적으로 그의 영광을 나타냈다는 예하다.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

베로네세는 예수님이 행하신 일곱 가지 기적 가운데 첫 번째 기적인 이 그림의 배경을 갈릴리의 가나라는 시골 마을이 아닌 자신이 살았던 당시 화려한 베네치아로 그렸다. 실제로 열리고 있는 듯한 떠들썩한 축제 분위기의 호화로운 결혼식을 표현했다. 베로네세는 화려한 그림 속 세상의 향락에 취한 듯한 우리의 모습 속에 말씀의 메시지를 가득 담고 있다.

베로네세는 〈가나의 혼인 잔치〉를 그릴 때 고급스러운 옷을 입고, 멋지게 치장한 신랑과



“이 작품들을 보고 들으면서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듯이,
나를 새사람으로 만들어 주신
예수님의 첫 기적을 생각하며, 진정한 새사람의 모습을
갖추고자 하루하루 노력하면 좋겠다.”

신부를 그림의 왼쪽 한구석으로 몰았다. 대신 예수님과 마리아를 그림의 정중앙에 배치해서 이 작품의 종교적인 경건함을 표현하였다. 포도주가 다 떨어진 잔치집에서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고, 그 포도주는 이제껏 먹었던 그 어느 포도주보다 좋았다.

이 그림의 주제가 되는 포도주 이야기를 작품 속에서 찾아보자. 화면 정중앙에 후광이 머리 위에 그려진 예수님과 마리아가 앉아있다. 마리아에게 하인이 와서 뽀기를 이야기하는 장면이 포도주가 떨어졌음을 알리는 모습으로 짐작된다. 오른쪽 앞쪽으로 하인들이 물동이를 들고 물을 붓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으로 여섯 물동이에 물을 채우고 따왔더니 포도주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표현한 것이다. 그림 속 흰색 물 항아리에서 나오는 물은 이미 포도주로 변했다. 그 옆에서 잔치의 연회장이 포도주잔을 심오하게 바라보고 있는데, 그의 표정에서 새로 만들어진 포도주에 대한 경이와 감탄을 느낄 수 있다. 이렇게 만들어진 포도주가 화면 왼쪽 아래 신랑에게 전달되고 있다.

예수님이 하실 수 있는 많고 많은 기적 중에 왜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처음으로 행하신 것일까? 마리아의 요구에 “여자여,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라고 대답하신 예수님이 그의 뜻이 이루어질 때 보여주실 변화된 세상을 포도주로 상징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아닐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내가 변해서 새사람이 되는 것이다. 내가 변하는 것이야말로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첫 번째 기적이

다.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것, 가장 놀라운 것이 바로 나 자신의 변화다. 예수님은 전혀 변할 수 없는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 연회장의 손에 들린 감동의 포도주잔, 하인의 손에 들려 신랑에게 전해지는 놀라운 포도주잔이 그 변화의 결실이다.

가나의 혼인 잔치의 ‘진짜 주인공’

베로네세가 그림 속에 숨겨둔 또 다른 메시지가 있다. 가나의 혼인 잔치의 진짜 주인공이다. 작품 제목이 〈가나의 혼인 잔치〉이기 때문에 신랑과 신부가 그림의 정중앙에 있어야 하는데, 정작 이 그림의 한가운데에는 예수님이 계신다. 마치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을 연상하게 하는 만찬 테이블이 펼쳐져 있고, 그 중앙에 예수님과 마리아가 앉아있다. 바로 이점이 이 그림의 묵상을 풍요롭게 해준다. 베로네세는 가나의 혼인 잔치에서 최후의 만찬을 보았고, 가나의 혼인 잔치의 포도주에서 최후의 만찬의 성찬식의 포도주를 본 것이다.

“...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흘리는 바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마 26:27~28).

처음에는 그럴듯하다가 마지막까지 그 맛을 유지하지 못하는 보통 잔치집의 포도주가 아니다.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완전히 변해서 연회장도 감탄하는 최고의 포도주다. 예전에 잘 못만 모든 죄가 모두 사하여지고, 완전히 새사람이 되는 변화를 의미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성령으로 변화된 새사람이 되는 것, 육체의 욕심, 본성과 율법에 매인 사람이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사람이 되는 것이다.

이 그림에 등장하는 130명 이상의 인물을 하나씩 관찰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 이 작품에는 화려한 베네치아 복장의 신랑 신부와 축하객들, 잔치의 분위기를 한껏 높여주는 연주자들과 분주한 하인들도 보인다. 작품이 주는 첫인상은 신나고 시끌벅적한 결혼식 그 자체다. 하지만 2층 중앙에 하인들이 어린 양을 도축하고 있는데, 이는 어린 양 예수님이 머지않아 십자가에서 희생당하고 피를 흘리실 것을 상징한다. 아래에 보이는 연주자들은 바사노, 틴토레토, 티치아노와 베로네세 자신의 모습으로 그려 넣었다. 베로네세가 자신이 존경하는 화가들의 모습을 그려 넣은 것으로 보인다. 그들 앞에 놓인 모래시계는 예수님의 공생애가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 모든 장치가 그림 속의 화려한 세상에서 우리를 경건한 깨달음으로 몰입시킨다.

포도주와 새사람

이 작품과 함께 글린카(E. Glinka)의 오페라인 ‘루슬란과 루드밀라의 서곡(Ruslan and Ludmilla, Overture)’을 들어볼 것을 권한다. 글린카는 러시아 출신 작곡가로 시인 푸시킨의 같은 제목의 작품(서사시)에 바탕을 두고 이 오페라를 작곡했다(1842년). 악마 체르노물에게 유괴된 키예프 대공의 딸 루드밀라를 세명의 기사가 도와주는 러시아 민화에 그 바탕을 두었다. 빠른 리듬감의 경쾌하고 밝은 멜로디의 서곡은 요즈음 연주회용 레퍼토리로, 애호가들의 사랑을 받는다. 오페라에서 서곡은 예고편이라고 볼 수 있다. 루슬란 왕자가 어려움 속에서 루드밀라 공주를 구하고 진정한 사랑을 이루는 이야기다. 이 오페라는 결혼식에서 신부가 사라지는 장면으로 시작해서 행복한 결혼식 장면으로 끝이 난다. 오페라의 시작뿐 아니라 마지막 장면인 루슬란과 루드밀라의 결혼식 장면에 이 곡이 등장한다.

베로네세 그림의 시끌벅적 화려한 결혼식 장면은 이 오페라 속 결혼식 모습과 흡사하다. 신나는 시작 부분과 다르게 곡 중간 부분은 조용하고 무거운 무드로 변하는데, 루슬란과 기사들 사이의 많은 우여곡절을 보여준다. 마지막에 다시 경쾌한 분위기로 복귀하는 음악은 물이 변해서 포도주로 만들어지는 긴장된 장면을 상상하게 한다. 떠들썩한 세상이 미처 깨닫지 못하는 가운데, 예수님이 주관하시는 웅대한 성찬식이 진행되고 있는 느낌을 이 곡을 들으면서 감상하는 것도 좋겠다.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듯이, 나를 새사람으로 만들어 주신 예수님의 첫 기적을 생각하며, 진정한 새사람의 모습을 갖추고자 하루하루 노력했으면 좋겠다.



음악 QR

맛있는 말씀 해설

“...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행 3:11~12)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이 긍정적으로 달라졌다. 평생 장애를 가지고 살 줄 알았던 사람이 완전히 낫게 되는 기적(16절)으로 인해 백성들이 놀라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려고 수많은 인파가 몰려들었다(11절). 사람들은 솔로몬 행각에 있는 베드로와 요한을 구경하려고, 이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들으려고, 혹시 나에게는 기적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기대감으로 최대한 가까이 나아갔다.

예루살렘교회 리더 베드로의 어깨가 한껏 올라갈 법도 한데 그는 달랐다.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예수로 말미암아 완전히 낫게 되었다”고 말한다. 베드로는 기적의 현장에서 자신을 주목하게 하지 않았고, 오직 하나님을 주목하도록 했다. 믿음에 대해서도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라고 고백한다(16절). 교만의 아이콘이었던 베드로가 예수님의 교훈과 사랑으로 훈련되고, 변화되어서 이제 겸손의 사람,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 자신에게 쏟아지는 스포트라이트를 거부하고 하나님을 주목하도록 증언하는 사람이 되었다. 베드로의 뛰어난 점은 겸손에만 있지

않다. 이 일을 기회로 이스라엘의 민족적 사명을 상기시켰다. <사도행전> 3장 12~26절을 보면 다음과 같다.

“너희가 거부하고 죽인 예수 그리스도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사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고, 여러 증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잘 몰랐기에 그랬다고 생각한다.

“그 길이 때로는 힘겹고 고되더라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용기 있는 도전을 해야 한다.”

하지만 이제는 분명히 알아야 하고 받아들여야 한다.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모든 거룩한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 그로 인한 구원을 말씀하셨다.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한 선지자들의 자손이고, 하나님의 비전을 부여받은 언약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은 세상의 모든 민족이 창조자 하나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하기 위함이다. 이스라엘 민족의 선교적 사명을 기억하라.”

베드로의 메시지는 위험을 감수한 발언이었다. 당시 기독교, 예수님을 부정하던 이스라엘 종교지도자들에게 큰 위협과 도전이 되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베드로는 이 설교 이후 감옥에 갇히는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다. 그러나 베드로의 설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기독교 공동체의 위상이 어느 정도 무르익었던 시점에서 복음의 전파가 본격적

으로 이루어지게 하는 교두보가 되었다.

베드로는 단순히 한 명의 병을 고친 기적에 기뻐하면서 그것에 안주하지 않고, 이 세상의 변화를 향해서 나아갔다. 예루살렘교회 공동체에 머물지 않고, 권능과 경건 그리고 믿음의 능력으로 세상을 향해 거침없이 나아갔다. 베드로는 작은 지역을 넘어서서 온 세상이 하나님을 주목하도록 하려는 비전을 품고 이스라엘의 사명감을 복돋웠다.

베드로가 역사적인 설교를 한 곳은 예수님

과 함께했던 추억이 많았던 장소다. 유대인들이 특별히 거룩한 곳으로 여겨서 이스라엘 최고의 황금기를 누렸던 솔로몬의 이름을 따서 동쪽의 행각을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렀다. 성경을 보면 이곳에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자주 모였다(요 10:22~23). 당시 베드로는 실수가 참 많았는데, 그랬던 그가 이제 사람들을 대상으로 당당하게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니 얼마나 감회가 새로웠겠는가?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고, 수많은 추억이 있다. 예수님이 계셨기에 오늘날 내가 있다는 겸손함을 잃지 말아야 한다. 추억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더 넓은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야 한다. 그 길이 때로는 힘겹고 고되더라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용기 있는 도전을 해야 한다.

겸손과 도전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다.



이강현 목사
(양재A공동체)

<생명의 삶> QT 프리뷰(Preview)

왕이신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간구

3월 4~10일
<시편> 44:9~49:20



목상포인트 1:

<시편> 44편은 국가적인 비탄 시로, 암울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시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은 비참한 현실에서도 주님의 길을 떠나지 않았다고, 하나님 이름을 잊지 않았다고 고백하는 <시편> 기자의 믿음을 목상하자.

44편: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함께하시지 않음으로 이스라엘이 패배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다고 고백한다. 과거 이스라엘과 함께하시며 도우신 하나님이 이제 함께하지 않으시니 그들이 수치와 모욕을 당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시편> 기자는 여전히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일어나 도우시고 구원하시기를 간구한다.

목상포인트 2: 하나님은 온 우주를 다스리는 왕이시다. <시편> 45~48편을 통해 피난처가 되시고, 완전한 공의로 심판하시며, 만민에게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는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을 목상하자.

45편: <시편> 기자는 뛰어난 글솜씨로 왕을

위해 노래한다. 왕은 진리와 공의를 위해 병거에 오르며 승리를 거둔다. 왕이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기에 하나님은 그에게 즐거움의 기름을 부으시고, 그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신다. 왕의 이름은 영원히 기억되며 만민이 찬송할 것이다.

46편: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요 힘이시며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 하나님은 땅을 황무지로 만드시고,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는 분이다. 성도는 잠잠히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아야 한다.

47편: <시편> 기자는 지존하신 하나님, 온 땅을 다스리시는 크신 왕께 즐거이 외치라고 한다. 하나님은 나라들을 자기 백성에게 복종 시키시고 기업을 택해 주신다.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시다. 거룩한 보좌에서 못 백성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은 만민의 찬양과 높임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다.

48편: 하나님은 거룩한 산(시온 산)에서 찬양을 받으실 것이다. 인자와 정의가 충만하신 하나님의 심판을 모두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다. 성도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후대에 전해야 한다.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의 하나님이시며,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신다.

목상포인트 3: <시편> 49편은 소유에 집착하는 이의 어리석음을 교훈하는 시다. 이내 사라져 버릴 순간의 만족이 아니라 영원한 생

명과 안식을 소유하는 것이 참된 지혜요, 복이다. 세상의 부유함을 대하는 바람직한 성도의 자세를 목상하자.

49편: 지혜자는 백성에게 자신의 말에 귀를 기울이라고 권고한다. 지혜로운 자는 자기 재물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자랑하는 자다. 사람은 존귀하나 유한한 존재이기에 겸손해야 한다. 어리석은 자는 사망에 이르지만, 지혜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자는 하나님이 영접하시고 사망에서 건지신다.

-적용을 위한 가이드

▶<시편> 기자는 민족이 처한 암울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믿음으로 간구했다. 우리 민족을 위해 하나님께 간구할 기도제목들을 정리해 보자. ▶왕이신 하나님은 정의를 사랑하시고 악을 미워하신다. 내가 주님의 신부로서 미워하고 버려야 할 악이 무엇인지 돌아보자. ▶이번 주간 왕이신 하나님을 노래하는 찬송가나 CCM을 자주 듣고 가사를 목상하며 소리 높여 하나님을 찬양하자. ▶고난이 올 때 내 열심과 계획으로 움직이는 것을 멈추고 잠잠히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자. ▶하나님이 나에게, 가정과 교회에 행하신 일들을 다음 세대에게 간증할 수 있도록 날마다 믿음의 행적을 쌓아 가자. ▶인생의 유한함을 알고 내가 버려야 할 세상의 애착이 있는지 돌아보자. 물질의 부유함을 추구하기보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물질을 잘 사용하는 사람이 되도록 간구하며 힘쓰자. / <생명의 삶> 편집부

온누리가 함께 하는 기도

J형제를 위해서!

깊은 수렁에 빠진 J형제를 위해서 기도 해주십시오. J형제는 오랫동안 하나님을 거부하고, 믿지 않았습니니다. 그랬던 J형제가 최근에 마음이 열리고,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매주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성경도 조금씩 읽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J형제가 매주 예배드리고,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도록 기도해주시지요.

J형제는 10여 년 전 일들로 인해 지금까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J형제가 집단 괴롭힘과 따돌림 등 과거의 상처에서 벗어나도록, 기쁨과 감사를 회복하도록 기도해주시지요. J형제를 지배하는 분노와 자기연민에서 벗어나 모든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릴 수 있도록 기도해주시지요. 무엇보다 J형제가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믿도록 기도해주시지요.

J형제가 현재 섭식을 거부하고, 게임과 미디어 중독에 빠져 있습니다. J형제의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해주시지요. 게임과 미디어 중독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도록 기도해주시지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되도록, J형제와 그 가정이 예수님으로 하나 되어서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기도해주시지요.

/ 익명의 성도

*기도제목 보내는 곳: daa2@onnuri.org



목사님, 질문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혜

“반복되는 실패를 경험하고, 다시 도전하는 게 두렵습니다. 어떻게 하면 담대하게 도전하고, 하나님 안에서 꿈을 이룰 수 있을까요?”

인생을 살다 보면 밝은 미래가 손에 잡힐 듯 기대될 때가 있다. 그때 우리는 그 기대에 힘입어 용기 내어 도전한다. 하지만 그 기대가 실패가 되어 돌아오면 인생이 생각처럼 순탄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 깨달음이 두려움이 되어서 다시 도전하는 것을 주저하게 만든다. 기회가 주어져도 ‘어차피 실패하고 말 텐데’ 하고 비관적으로 생각하거나 도전하기 전에 일찌감치 포기하기도 한다. 이처럼 우리의 삶은 매일 도전과 실패를 반복한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늘 ‘죄의 유혹’이라는 도전을 받는다. 이 도전은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는다. 가정과 캠퍼스, 직장을 비롯한 삶의 모든 자리에서 도전받게 된다. 하나님 안에서 꿈을 이룬다는 게 무엇일까? 세상에서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는 것, 즉 모든 삶에서 거룩을 지키면서 사는 것이다. 하지만 많은 그리스도인이 죄의 도전 앞

에서 거룩을 지키지 못하는 순종의 실패를 경험한다. 실패가 한 번으로 그치지 않고, 같은 상황이 반복되고, 계속 실패를 낳는다. 그때 우리의 연약함과 한계를 마주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꿈을 이루는 것을 두려워하게 된다. 거룩을 지키기 위한 그리스도인의 도전과 실패가 계속될 것이다. 그럼 우리는 계속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을까?

〈전도서〉 7장 12~14절은 우리가 미래를 알지 못하기에 단편적인 시각을 갖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한다. 단편적인 시각은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낙관주의’와 ‘비관주의’다. 인생에 기분 좋은 요소만 가득하고, 모든 게 잘 풀릴 거라는 낙관주의는 위험하고 편협한 생각이다. 이것은 실패에 대한 자기반성을 가볍게 여기는 원인이 된다. 실패로 인한 두려움을 잠깐 덮을 수는 있겠지만, 오히려 궁극의 비관으로 향하는 지름길이 될 수 있다.

비관주의도 마찬가지다. 비관주의는 인생을 현실적으로 보고, 한계가 있음을 인정한다. 웃음이나 거짓으로 실패를 피하지 말고, 그대로 직면하라고 한다. 하지만 직면에 대한 결론은

늘 냉담하고 부정적일 뿐이다. 계속된 실패와 비관적인 결론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나를 거세게 짓누른다. 그러다 보면 처절한 실패의 늪에 빠져 다시 일어설 수조차 없게 된다. 인생은 낙관만 해서도 안 되고, 비관만 해서도 안 된다.

그렇다면 낙관과 비관 사이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까? 그렇지 않다. 〈전도서〉 저자는 “지혜가 방패막이가 된다”, “지혜가 그것을 가진 사람에게 생명을 준다”고 말한다.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혜’다. 반복된 실패 앞에서도 다시 담대하게 도전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원동력이 있어야 한다. 그 원동력은 하나님 안에서 거룩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이어야 한다.

또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다. 예수를 아는 지혜만이 도전을 멈추지 않게 하고, 하나님 안에서 꿈을 이룰 수 있게 한다.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우리의 삶을 말씀 그대로 살린다. 예수님은 우리 삶을 의미 없고, 비관적으로 만드는 모든 죄와 싸우셨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

으로 모든 죄를 이기셨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다.

반복된 실패로 괴로워하고 있는가? 실패로 인한 상처로 다시 도전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는가? 예수님이 순종함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것처럼, 내 삶을 순종함으로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한다. 그때 우리는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을 보게 되는 부활을 경험할 것이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순종과 승리가 실패를 넘어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확실한 증거가 된다. 그래서 또다시 담대하게 도전할 수 있다.

“그리스도는 약한 가운데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여러분의 일에 대해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분과 함께 살 것입니다”(고후 13:4).



전진 목사
(CHPLUS청년부)

크리스천을 위한 부부상담

극단적인 방어 대신, 넓은 마음으로 인정하는 태도!

부부에게 사소한 갈등이 생겼을 때 각자 불편하고, 힘든 마음을 배우자가 알아주기를 기대하면서 대화한다. 예상하지 못했던 배우자의 언행으로 상처를 입었다고 말하기도 한다. 물론 온화한 어투로 불편했던 마음을 표현한다면 수월하게 갈등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러나 갑작스러운 상황에서 발생한 갈등은 온화하고 세련된 자세로 대처하기 어렵다. 자신도 모르게 거친 말투를 사용하기도 한다. 얼마나 당황했고, 억울한 마음이 들었는지 분노 형태로 말하면서 배우자를 쏘아붙이기도 한다. 이렇게 극단적인 모습으로 치닫게 되면 부부는 격분된 상태로 연성을 높여서 논쟁한다.

부부 관계를 흐드는 것 중 하나가 ‘왜곡된 자기방어’다. 평소 대인관계에서 자기방어적이었던 사람은 관계의 갈등 상황에서 더욱 방어적으로 말하고 행동하게 된다. 물론 방어적인 사람이 늘 자기 보호를 위해서 방패만 사용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창을 가지고 상대를 향해 날카로운 비난의 말과 거친 행동으로 공격하기도 한다. 그런데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말이 상대가 듣기에는 자기변명을 늘어놓는 것처럼 들린다. 더욱 극단적으로 가면 자신은 갈등 상황에서 늘 피해자이고, 억울한 마음이 가득하다고 하소연하기도 한다.

왜곡된 자기방어의 동기를 보면 비난받는 것에 대해서 참을 수 없는 불편함이 마음에 자리 잡고 있다. 사람은 누구나 비난받기를 싫

어한다. 어떤 경우에는 사소한 조언조차 비난으로 여기고 불편해하기도 한다. 조언조차 불편해하는 경향이 있는데 만약 강도 높은 비난을 직접적으로 받는다면 참기 힘든 마음의 고통이 따를 것이다. 어떻게 하든지 자신이 했던 행동에 대해 방어적인 태도로 변명을 늘어놓는 사람들도 있다. 부부 관계에서 방어적인 태도로 변명을 늘어놓는다면 함께 살아가는 배우자는 분노와 슬픔의 늪에 빠지게 될 것이다.

결혼생활에서 누구도 선의 역할만 하는 사람은 없다. 평소 실수를 거의 하지 않는 사람이라도 살면서 의도하지 않게 배우자의 마음에 상처를 줄 때가 있다. 자녀에게 슬픔을 안겨주는 행동도 한다. 누구나 실수할 때가 있고, 용서를 구해야 할 때가 있다. 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실수하고, 관계에 어려움을 제공하는 당사자가 자신이 될 때가 있다. 그래서 배우자에게 질책의 말을 들을 수도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왜곡된 자기방어적인 변명은 유익하지 않다. 적극적으로 언행의 동기에 대해서 전달할 필요는 있지만, 방어적인 태도로 일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한편 자신은 아무런 문제 될 만한 언행을 하지 않았을지라도 가족과 배우자가 느끼기에 불편한 마음이 들게 할 때도 있다. 의도하지 않게 했던 무의식적인 행동이 배우자에게 어려움을 주는 경우가 있다. 선한 의도로 했던 행동이 오히려 배우자와 가족에게 불편함을

주는 사소한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 늘어놓는 변명처럼 고집스러운 자기방어적 말이 때로는 마음을 찌르는 비난으로 표현되기도 한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라는 식의 격한 표현을 하게 된다. 부부 관계에서 서로를 공격하는 말들은 결국 서로에게 마음의 고통만 주는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온다.

부부의 갈등 상황에서 늘어놓는 변명과 수동적이고, 공격적인 비난은 관계를 성장시키거나 발전시키기 어렵다. 자신을 변호하기 위한 자기방어적인 말과 공격적인 말은 대화라고 할 수 없다. 이기고 지는 게 목표가 되는 말싸움이라고 할 수 있다. 서로의 마음이 더욱 멀어지게 되고, 상심의 골이 깊어진다. 서로의 눈에서 사랑의 온화함을 찾아볼 수 없게 된다.

그렇다면 부부의 갈등 상황에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겠는가? 부부는 극단적인 방어 대신 넓은 마음으로 인정하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 미안한 마음을 전달하는 게 필요하다면 “미안하게 뵈다”고 말해야 한다.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서 마음이 상했다는 배우자의 말을 듣게 된다면 “의도하지 않았는데 내가 이번엔 실수했어요 미안해요”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인격적인 성숙이 필요하다.

어떤 행동에 대해서 사과가 필요하다면 하는 게 가족관계와 부부 관계의 성장에 도움이 된다. 한 번 사과했다고 해서 ‘사과뭉치’라고 낙인을 찍어서는 안 된다. 다만 어떤 사건이나

행동에서 느끼는 불편함을 놓고 사과와 실수를 인정하는 말을 주고받을 수 있어야 한다. 결혼생활에서 한 배우자가 늘 옳고, 다른 한 배우자는 늘 틀린 경우는 없다. 누구나 실수하기도 하고, 사과를 요구받을 수 있는 불안정한 존재다. 한두 번 잘못을 근거로 한쪽 배우자를 구제불능이라고 낙인을 찍는 것은 옳지 않다.

자신의 불편한 마음을 나누고 사과를 요구할 수 있어야 한다. 반대로 용서를 구할 수도 있어야 한다. “사람들 앞에서 했던 나의 말이 당신의 체면을 깎아내린 것 같은 느낌을 받게 했더니 미안해요. 전혀 그럴 의도가 아니었어요. 미안해요”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자존감이 그렇게 낮아서 어떡해?”라는 식으로 비난에 가까운 핀잔을 준다든지 계속해서 “난 그럴 의도가 전혀 없었어”라는 고

집스러운 자기방어적인 말은 마음이 상해 있는 부부 관계에 긍정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인정하면서 사과하는 게 상처 난 곳을 회복할 수 있는 치료약이 될 것이다(잠 28:13).



황규복 박사,
김숙경 소장 부부
(두란노 결혼예비학교
부부강사, <그런 당신이
좋다> 저자)

피(血)로 전하는 이웃 사랑!

3월 31일까지 '생명나눔의 기적 시즌 4'



대한민국 '피(血)로 회복 프로젝트 '생명나눔의 기적'에 참여한 온누리교회 성도들.

헌혈로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대한민국 '피(血)로 회복 프로젝트 '생명나눔의 기적' 시즌4(이하 생명나눔의 기적)가 3월 31일(부활절)까지 이어진다. 온누리교회를 포함해서 전국 147개 교회와 55개 기관 및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현재까지 성도 1,264명이 헌혈을 시도했고, 790명이 완료했다. 희귀난치병 환자를 위한 치료비는 4,300여만 원이 모금됐다(2월 28일 기준). 모금한 헌혈증과 수술비는 연세의료원을 통해 환아들에게 전달된다.

생명나눔의 기적에 동참을 원하는 성도들은 가까운 한마음혈액원 헌혈카페 또는 헌혈의 집을 방문하면 된다. 헌혈하기 전에 '온누리교회' 또는 '생명나눔의 기적'에 참여하고 있다고 밝혀야 생명나눔의 기적 인원으로 집계된다(한마음혈액원만 해당).

온누리교회 '생명나눔의 날' 행사도 열린다. 3월 10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양재온누리교회 주차장으로 헌혈버스가 온다. 참여하고 싶은 성도들은 온누리교회 홈페이지

지(onnuri.org)에서 헌혈을 신청하고, 당일 양재 원형카페에서 사전 문진을 한 다음, 담당자의 안내를 따라 헌혈하면 된다.

생명나눔의 기적 '참여 인증 사진, 한 줄 소감, 이름, 소속, 연락처, 주소'를 카카오톡 채널 '온누리교회 생명나눔의 기적'이나 문자메시지(010-2714-0291)로 보내면 온누리교회 SNS 계정, <온누리신문>에 소개하고, 이재훈 위임목사의 저서 <방황의 시대, 방향이 되다>를 선물로 보내준다. / 홍하영 기자

'원더풀 라이프' 세미나

3월 28일~4월 11일 19시 30분 서빙고 두란노홀

'원더풀 라이프' 세미나가 3월 28일부터 4월 11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후 7시 30분 서빙고온누리교회 두란노홀에서 열린다. 60대 이상 성도라면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신청은 QR코드나 전화로 하면 된다.

원더풀 라이프 세미나에서는 김형석 명예교수(전 연세대 철학과) '그리스도인으로 100년을', 김영석 교수(한국교원대) '초고령 사회의

모습과 역할', 박종길 목사(온누리교회) '감사와 비전'을 주제로 강의하고, 조별 모임 등을 한다.

원더풀 라이프는 6070 세대가 하나님 주신 은사와 전문성을 살려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삶을 살도록 돕는 사역팀이다.

문의: 02-3215-3434



(신청 QR)

시니어 아카데미 참가자 모집

3월 13일부터 서빙고반, 양재반 개강

서빙고와 양재 '시니어 아카데미'가 개강한다. 3월 13일부터 6월 12일까지 12주 동안 예배, 소그룹 나눔, 맞춤형 강의, 야외 활동 등의 프로그램이 이어진다.

서빙고 시니어아카데미는 3월 13일부터 6월 12일까지 매주 수요일 오전 11시 두란노홀에서 진행된다. 시니어 성도라면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다. 수강신청은 아이스쿨에서

하면 된다. 80명 선착순 모집한다. 회비는 5만 원.

양재 시니어아카데미는 3월 13일부터 6월 12일까지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 30분 드림홀에서 열린다. 65세 이상 장년 성도라면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다. 수강신청은 당일에 현장에서 접수하면 된다. 회비는 5만 원.

문의: 02-3215-3533(서빙고) 02-570-7349(양재)

온누리 가스펠프로젝트(OGP) 개강

4월 8일부터 8주, 5개 과정, 온라인

2024년 1학기 온누리 가스펠프로젝트(Onnuri Gospel Project)가 개강한다. 이번 학기에는 구약 '위대한 시작', '하나님의 구출 계획', '약속의 땅', '왕국의 성립', '선지자와 왕' 등 5개 과정이 4월 8일(월)부터 온라인(Zoom)으로 8주 동안 이어진다. 온누리교회 등록 성도라면

누구나 수강할 수 있다. 구체적인 과목별 모집 요강은 양육신문이나 아이스쿨을 참조하면 된다. 참가신청은 각 공동체 양육 담당 총무에게 하면 된다. 개강 이후 소그룹별로 요일과 시간을 정해서 온라인(Zoom) 나눔을 한다.

문의: 010-2822-3280

온누리 전도학교

온누리 전도학교 수강생을 모집한다. 서빙고 3월 17일부터 일요일 현장 과정 오전 8시 40분, 화요일 현장 과정 오후 7시 20분, 목요일 온라인 과정 오후 8시에 진행된다. 양재 3월 17일부터 현장 강의와 온라인 혼합 과정으로 진행된다. 부천 3월 21일부터 목요일 온라인 과정 오후 8시, 토요일 현장 과정 오전 10시 30분에 진행된다.

문의: 서빙고(010-9724-2258) 양재(010-3010-0156) 부천(010-3949-3674)

'Why Mission?' 개강

온누리 선교학교 'Why Mission?'이 3월 9일부터 4월 20일까지 이어진다. 서빙고 'Why Mission?'은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한동홀에서 열린다. 참가신청은 3월 16일까지 아이스쿨에서 하고, 회비는 6만 원이다. 양재 'Why Mission?'은 매주 토요일 오후 3시 50분 두란노홀에서 진행된다. 신청은 3월 9일까지 아이스쿨에서 하고, 회비는 5만 원(교재비 별도)이다. 문의: 서빙고(010-6637-7540) 양재(010-7228-5798)

CGN 유튜브 구독자 70만 돌파 이벤트!

3월 10일까지 CGN 유튜브 영상 시청 및 댓글

CGN이 유튜브 채널 구독자 70만 명을 넘어섰다. 이를 기념하는 '70만 축하 댓글' 이벤트와 '구독자를 찾아라!' 이벤트를 한다.

'70만 축하 댓글' 이벤트는 3월 10일까지 CGN 유튜브 채널을 구독한 다음, 채널에 올라온 '70만 축하 영상'에 댓글을 남기면 된다. 구글 폼(QR 참고)으로 댓글 캡처본을 제출하고, 기본 정보를 입력하면 된다. '구독자를 찾아라!' 이벤트는 CGN 유튜브 채널 구독자 중에서 '특이

한 구독 날짜' (예: 2022년 2월 22일 등)를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유튜브 구독 활동 페이지에서 CGN 채널을 구독한 날짜를 캡처한 다음 구글폼(QR 참고)으로 캡처본을 제출하고 기본 정보를 입력하면 된다.

문의: 02-3275-3309



축하 댓글 이벤트



구독자를 찾아라!

한국어 선교학교 참가자 모집

3월 2일부터 매주 토 오후 7시 온라인

한국어 선교학교 참가자를 모집한다. 3월 2일(토)부터 5월 11일(토)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7시 온라인으로 강의한다. 1주차와 10주차에는 양재온누리교회 두란노홀에서 현장 강의를 한다. 한국어 교습을 통한 이주민 선교에 관심 있는 성도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수강

신청은 3월 8일(금)까지 아이스쿨(ischoolionnuri.org)에서 하면 된다. 회비는 5만 원.

한국어 선교학교에서는 한국어 선교 필요성과 전략, 한국어 선교사의 정체성, 한국어 발음교육론, 한국어 어휘교육론 등을 주제로 강의가 이어진다. 문의: 010-6652-3596

선교지를 위한 기도모임

우측 QR코드를 찍으면 서빙고와 양재온누리교회에서 진행되는 '선교지를 위한 기도모임'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2024년 하반기 결혼예배 예약 추첨

2024년 하반기(8~12월) 온누리교회 결혼예배 예약 추첨을 3월 19일(화) 오후 7시 양재온누리교회 드림홀에서 한다. 온누리교회 결혼예배를 예약하려면 예비 신랑, 신부 또는 양가 부모 중에서 한 명이라도 온누리교회 등록 성도여야 한다.

추첨하러 올 때는 예약금 100만 원(당일 이체불가, 현금으로 준비)과 등록교인증명서를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온누리교회 결혼예배 예약은 제비뽑기로 순번을 추첨하고, 그 순서대로 결혼예배 날짜를 선점한다. 문의: 02-570-7505



전도콜센터 02-3215-3377 언제든지 달려갑니다

장로칼럼

내 삶의 본질을 붙잡자

조청구 장로
(성동광진공동체)

본질(本質)은 본디부터 가지고 있는 사물 자체의 성질이나 모습으로 ‘어떤 것이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이다. 의자의 본질은 앉기 위한 것이고, 신발의 본질은 사람의 발을 보호하는 것으로 모든 것은 본질을 갖고 있다.

바다 속 물고기 중에 멸치의 개체수가 가장 많다. 암컷 한 마리가 1천7백~1만7천개 알을 낳는다. 고래는 가장 크고 멸치는 가장 작지만, 멸치는 고래보다 강력하고 담대하다. 고래가 멸치를 사냥하는데 고래를 만난 멸치 때는 질주를 멈추고 폭죽처럼 흩어졌다가 전열을 가다듬어 의연히 물결을 이룬다. 목숨이 경각에 처해도 비굴하거나 추악하지 않고, 포식자를 향하여 매혹적인 군무를 보여주는 어류는 멸치뿐이다. 멸치는 투명한 몸체로 일생을 살면서도 알을 뱀 흔적만은 감추는 은둔자의 삶을 산다. 멸치는 먹이를 먹고, 포식자를 피하고, 후손을 낳는 것이 삶의 전부이고, 본질이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업(業)의 본질이 바뀌고 있다. 석유회사가 석유사업을 포기하고, 자동차회사가 스스로 자동차회사로 불리기를 꺼린다. 유통회사가 물건을 파는 것보다 사람을 끌어 모으는 데 집중한다. 산업 경계가 무너지는 것을 넘어서 산업이란 말 자체가 무의미한 시대가 오고 있다.

한집에 살던 두 여인이 공교롭게 사흘 간격으로 아들을 낳았다. 한 여인이 잠결에 갈아뭇개는 바람에 아이가 숨지자 옆방 여인의 산아와 바뀌지 못했다. 서로 자기 아이라고 다투는 두 사람을 놓고 솔로몬 왕이 명령했다. “아이를 둘로 나뉘 두 여인에게 나눠주라.”

깜짝 놀란 진짜 어머니가 “아이를 죽이지 말고 저 여인에게 주라”고 했다. 누가 생모인지는 자명하다.

인간에게도 본질과 비본질이 있다. 본질적인 것은 크고 중요한 것으로 내가 평생 가야 할 길이고, 내 인생의 올바른 궁극적인 방향이다. 비본질적인 것은 작은 것으로 눈앞의 욕망이고, 사사로운 욕심이다. 현인들은 본질적인 것에 집중해서 덕이 있는 사람이 되고, 단단한 자기중심으로 시련에 이길 수 있는 힘을 기르라고 했다. 자기 주관과 족대가 확실하기에 살아가는 이유가 명확했다. 건강을 잃은 뒤에 지키려고 하면 이미 늦은 것이고, 소중한 것을 잃기 전에 지켜야 하는 것처럼, 고난이 오기 전에 내 삶이 정상적인 때 지금 하는 일과 의미를 물으며 삶의 방향을 점검해야 한다.

성경 속 고린도 교회는 학교와 지역, 이해관계에 따라 뭉쳐서 인맥을 만들고, “나는 바울 파다”, “바나바파다”, “베드로파다”, “그리스도파다”라고 했다. 사도 바울이 사실을 알고 “이게 말이 되느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 모인 형제자매이다. 그런데 파를 나누고 반목질시하고, 비판하느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시고 복음이다”라고 했다.

하용조 목사님이 이 땅에 살 때 “본질 아닌 것 때문에 분노하거나 고집을 부리지 말고 정신 차리고 살라”고 했다. 정신을 차린다는 것은 바로 지금, 현재를 직시하라는 것이다. 진리가 아닌 거짓을 살거나 헛된 우상에 사로잡히지 말고, 현재의 진리를 따라 살라는 것이다.

‘벌써’라는 말이 3월처럼 잘 어울리는 달이 없을 것 같다. 새해맞이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봄바람이 날리는 3월이 시작됐다. 지금은 신앙인으로서 삶의 본질이 무엇인지,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쯤 점검하며 살아가야 할 때다. 내 삶의 본질과 가치를 찾아가는 복된 인생길이 되기를 소망한다.

권사칼럼

시니어 아카데미를 기다리며

김정옥 권사
(강남E공동체)

툭, 툭, 후두둑...
우산 위로 겨울비가 내리는 지난 1월 어느 날 새벽이었다. 안개가 사방에 자욱하고, 우산 속 나만의 세계가 이렇게 좋을 수 있다는 것을 새삼 깨달았다. 잠깐 사색에 잠기며 지나온 은혜의 순간들을 곱씹

어 보았다.

지난해 초 시니어 아카데미를 등록하지 못함을 아쉬워하며 미련을 버리지 못한 채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다. 더군다나 몸살 기운이 뻗치는지 컨디션도 좋지 않았다. 나를 누르고 있던 아픔이 기승을 부리듯 내 몸을 땅속 깊이 끌고 들어갔다. 며칠 몸살을 앓고 난 다음 ‘이젠 끝이구나’ 생각했던 찰나 코로나19가 건너뛴도 없이 달려들었다. 그렇게 5일 동안 집안에 갇혀 지내야 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시간은 정말 그 자체였다. CGN의 위로가 없었다면 정말 버티기 어려웠을지 모른다.

시니어 아카데미 6조 조장의 끊임없는 기도와 주변 많은 친구들의 염려 덕분에 나는 기적처럼 회복되기 시작했다. 어린아이처럼 들뜨고, 봄치녀처럼 설레면서 시니어 아카데미 등록하는 날을 마냥 기다렸다. 시니어 아카데미는 한번 경험한 사람이라면 꼭 다시 참여하고 싶은 곳이다. 스태프들의 헌신적인 봉사와 사랑, 권사님의 유머 있는 운동시간과 노래, 장로님의 카리스마 있는 리더십, 강사들의 강의

등 오감의 즐거움이 가득하다. 시니어 아카데미에는 늘 웃음소리가 흘러넘친다. 믿는 사람들의 노후가 아름답고 행복하다는 것을 만끽할 수 있는 곳이다.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시니어 아카데미에 시니어 모두를 초대하고 싶다. 3월 시작되는 시니어 아카데미에 초대 의 말 대신 시 한 편을 띄우고 싶다. 제목은 ‘우리의 만남’이다.

우리의 만남

우리의 만남은

마음 닫고 미소 지으면서
주 안에서 만났네

우리의 만남은

시니어 아카데미에서
서로 사랑의 눈을 보았네

우리의 만남은

기다림 끝에 풍족한 식탁 위에서
내면을 들여다보기 시작했네

우리의 만남은

시간이 갈수록
아쉬운 만남이 되었네
만나고 헤어지고 또 만나며
우리는 사랑했네
들뜬 마음 안고 설레면서
기도로 잠 설친 채
봄의 꽃내음 맡으면서
또 새로운 만남을 기대하네



신앙에세이

서영찬 선교사
(남양주M센터)

‘남양주M센터’는 2004년 구리시 토평동에서 이주민 선교를 위한 기도모임으로 시작됐다. 인도와 네팔을 중심으로 이주민 선교를 시작했고, 2008년 외국인 근로자 선교팀에서 온누리미션으로 이름이 변경됐다. 이주

민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에 예배 처소가 필요했기에 2019년 남양주시 진접면 상가건물에 독립적인 센터를 설립했다. 이주민 선교가 교회에서 일어나 선교센터로 세워지는 일은 온누리교회가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사도행전적 바로 그 교회임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다.

2009년 12월 인도에서 온 해리 형제와 빠른 형제를 시작으로 2014년까지 이주민 11명이

세례를 받았다. 해리 형제가 온누리교회에서 세례 받고, 2018년 인도로 돌아가 목사가 됐다. 가족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가정교회를 개척하는 등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

남양주M센터는 성도들의 기도와 헌신 속에서 성령의 인도하심과 역사를 경험하고 있다. A형제는 힌디어예배에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지난해 8월 세례를 받았다. A형제에게는 말을 하지 못하고, 누워만 있는 다섯 살 아들이 있다. 소아마비로 선천적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 A형제에게 늘 아픔이었는데, 힌디어예배에서 한마음으로 기도하자 쇼크 증상이 사라졌고, 스스로 머리를 들고, 조금씩 걷는 기적이 일어났다. 완전한 회복을 위해서 지난 1월부터 ‘40일 특별기도’를 드리던 중에 처음으로 완전한 문장으로 말하기 시작했다. 이 일은 A형제와 남양주M센터 성도들이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확인하는 은혜와 기쁨이 되었다.

지난해 7월에는 폐산 형제가 네팔어예배에

왔다. 그는 어린 시절 어머니가 자살하는 아픔이 있었는데, 한국에 오기 전 함께 교회 다니던 자매의 자살 사건 이후 밤에 잠을 이루지 못했고, 두려움과 자살 충동 등 고통 속에 살고 있었다. 안산M센터에서 정상미 사모님의 상담치료와 성도들의 기도 덕분에 폐산 형제가 완전히 치유되는 은혜를 경험했다.

남양주M센터는 현재 캄보디아어예배와 방글라데시 무슬림 사역, 경북대학교 유학생 사역을 새롭게 시작하고 있다. 2022년 형제 한 명으로 시작했던 캄보디아어예배가 성도 12명이 함께 예배하는 공동체로 성장했다. 경북대학교 유학생 사역도 기도하면서 시작했다. 브라질, 인도, 카자흐스탄 등지에서 온 유학생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쳐주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 방글라데시 무슬림 사역은 무슬림 형제들에게 성경을 가르쳐주고, 많은 방글라데시 형제가 모이는 공동체로 성장하고 있다.

아프가니스탄 가정을 섬기는 SNS공동체는

각 가정에 위로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 남양주온누리교회 사회선교팀, 동작공동체, 진접다락방 등 많은 공동체가 매주 토요일 식사 준비와 주방과 센터 청소, 노방전도 등으로 선교사역에 동참하고 있다. 평일에는 중도 입국 자녀들을 위한 한국어 교실을 열고, 주말에는 한국어 토픽 공부를 가르쳐 주는 성도들도 있다. 이처럼 이주민 사역은 예수님과 한 몸이 되고, 한 마음을 품고 섬기는 사역이다. 작게 보이는 섬김이지만, 함께 섬길 때 하나님이 큰 열매를 맺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 특히 올해가 남양주M센터 힌디어예배와 네팔어예배 창립 20주년이다. 20년 동안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의 삶을 사는 성도들의 순종과 헌신을 하나님께 기쁘게 받으셨다고 확신한다.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온누리교회 성도들로 인해서 성령의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이 되는 남양주M센터가 되기를 소망한다.

http://www.onnuri.org			
국내 온누리교회			
이재훈 위임목사 • 서빙고 박종길 목사 (02) 793-9686(대표) 04428 서울시 용산구 이촌로 347-11 • 양재 강부호 목사 (02) 573-9686(대표) 06752 서울시 서초구 바우포로 31길 70 햇빛산교센터 • 부천 정재욱 목사 (032) 322-9686 14503 부천시 원미구 평천로 589 • 수원 김승훈 목사 (031) 895-6500 17065 용인시 기흥구 덕영대로2077번길 80 • 대전 김상수 목사 (042) 825-3642-4 35234 대전시 서구 둔산로 64 온누리빌딩 3-6층 • 남양주 이기복 목사 (031) 565-9686-8(대표) 11946 구리시 이문안로 154 진성빌딩 2-5층 • 평택 신동식 목사 (031) 651-9680(대표) 17866 경기도 평택시 신흥1로 2길 61 2층 • 인천 김승수 목사 (032) 437-9686(대표) 21987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교육로 75 • 강릉 이준호 목사 (02) 475-9686 06335 서울시 서초구 천호대로157길 14 나비빌딩 11, 12층			
안지 박철웅 목사 (031) 331-8171 17156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추계로62번길 20 • 영종 도육환 목사 (032) 752-7937 22377 인천광역시 중구 운남로 49 • 안산 온누리M센터 노규석 목사 (031) 491-9650 15243 안산시 단원구 신천로 8			
■기도처 • 태안온누리 임용성 목사 070-8627-7676 충남 태안군 태안읍 경이정3길 10 온누리교회 태안온누리 • 서산온누리 임용성 목사 (041) 665-9686 충남 서산시 생연남3길 9 서산온누리교회 • 봉화온누리 엄정순 권사 (054) 673-7428 경북 봉화군 명호면 만리산길 613 • 진새골온누리 주수일 장로 (031)-767-2776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진새골길 166			
해외 온누리교회			
■미사부 • 얼바인 박신웅 목사 1-949-261-9100 17200 Jamboree, Irvine CA 92614 U.S.A. • 로스앤젤레스 이정엽 목사 1-213-382-5658			
743 South Grand View st. Los Angeles, CA 90067, USA • 샌디에이고 이민욱 목사 1-619-847-4147 8990 Miramar R.d, Suite 275 San Diego, CA 92126 • 산타모니카 정장철 목사 1-213-235-5791 1420 Yale St. Santa Monica, CA 90404 • 괌 김형철 목사 1-671-734-8522 155 Father Duenas St. Mangilao Guam 96913			
■미동부 • 보스턴 김철진 목사 1-781-933-7044 73 pine st, Woburn MA 01801 U.S.A. • 시카고 이중재 목사 1-630-753-9191 1433 NMain St. Naperville IL 60563 • 뉴욕IN2 심상현 목사 1-212-427-2065 401 7th Ave.(18th Floor) New York, NY 10001 • 뉴저지 Marc Choi 목사 1-201-461-4010 1449 Anderson Ave., Fort Lee, NJ 07024			
■미북부 • 포틀랜드 이성권 목사 1-503-628-2000 19650 SW Scholls Ferry Rd. Beaverton, OR 97007 USA			
• 앵커리지 서재범 목사 1-907-569-9191 4801 old seward HWY Anchorage, AK 99503 • 밴쿠버 박태영 목사 1-604-888-0092 19711 86th Ave. Langley, BC V2Y 1Z5 Canada Worship: Pacific Academy Auditorium 10238 168th Street, Surrey • 오세아니아 • 시드니 전현규 목사 61-2-9649-1180 18 Main Ave. Lidcombe NSW 2141 Australia • 오كل랜드 조준목 목사 64-21-0810-3132 470 Glenfield Rd. Glenfield Auckland New Zealand • 홍콩 문영재 목사 852-2506-0089 6/F, Tower 1, South Seas Centre, 75 Mody Rd, Tsim			
• 일본 • 동경 후쿠자와 마키토 목사 81-3-5637-3210 (169-0074) 3-39-7 Kitashinjuku, Shinjuku-ku, Tokyo, Japan • 오사카 김철희 목사 81-6-6121-2015 (542-0083) Naniwa 3F 1-3-19 Higasiasinsaibasi Chuoku Osaka Japan • 우에다 하카마타 미키 목사 81-26-821-4566			
(386-0032) Nagano-ken Ueda-shi Suwagata 1377-64 JAPAN • 요코하마 니시아마 신이치 목사 81-45-641-6468 (231-0012) Yaomasa Bldg.4F.3-63 Aioi-cho, Naka-ku, Yokohama-shi, Kanagawa-ken, Japan • 아치오 요시하라 마나부 목사 81-47-482-1299 (276-0045) 832-2, Oowada, Yachiyo-shi, Chiba-ken, JAPAN • 나고야 정호석 목사 81-52-938-5011 (454-0974) AICHI-KEN NAGOYA-CI NAKA-GAWA-KU SHIMAI-CHO61 EHWA DAIAMOND 2F • 교토 권영환 목사 81-75-748-9303 (615-0854) Niskiyogoku Tsutsumisotocho 1-4(1F&2F),ukyo-ku, Kyoto-si			
■중동 • 아부다비 김도균 목사 971-56-385-4238 villa no.23 next to Bright Beginning Nursery, 25th street, Al Mushrif Abu Dhabi, UAE • 동남아시아 • 베트남 이길탁 목사 84-8-5412-2773 3SL.20-1 Grandveiv C, Phu My Hung Q7, HCMC, Vietnam			

섬기는 분들

- ◆ 위임목사
이재훈
- 국내 온누리교회
- ◆ 캠퍼스 담당목사
박종길 강부호 정재욱 김승훈
김상수 이기복 신동식 김승수
이준호 박철웅 도육환
- ◆ 부목사(전임)
김미향 강은수 강지영 고길현
권용갑 김혜영 김도윤 김미정
김상규 김진재 김성욱 김성웅
김승겸 김승만 김용배 김유성
김용민 김용산 김용태 김유식
김재식 김재승 김경희 김종민
김종아 김종호 김창호 김태용
김태원 김한국 김현식 김홍주
노규석 김지형 노희태 럼문 홍
문영재 박근범 박성은A 박성은B
박성전 박정중 박정호 배행산
백승우 백인규 백대성 서경남
송석근 송영동 송재호 신기섭
신경훈 신원식 신현민 스티브차
송동주 송현호 안시무엘 양성민
양진범 양재경 여성진 오 민
오은규 유인아 유현복 윤미아
윤현규 이강현 이기원 이기훈
이비오 이서진 이세영 이승민
이우람 이윤재 이재정 이찬우
이한규 임용성 장동원 장재원
전병천 전신익 전 진 전재표
정상훈 정성진 정승철 정한호
정현식 정희성 제지윤 조동욱
조병홍 조바울 조현수 최대홍
최성규 최성민 최영민 최홍준
최재윤 최중현 최혁중 추대식
카와무라 요시키 하성희 하정훈
한호수 한홍희 허원희 황신연

- ◆ 전도사(전임)
김은혜 김태광 민근호 박성원
박성훈 신대중 신주용 송예찬
오현교 유성하 이상욱 이진기
이호준 이형복 임동현 장지훈
정연상 조은광 주하늘 진선미
황유일
- ◆ 목사(준전임)
권오향 구혜미 조호영 황종연
- ◆ 경배와찬양 목회자
하스데반
- ◆ 협동목사
김도일 류모세 방선거 이기복

- 한정국
- ◆ 부목사(파트)
강기웅 강병주 강래위 김병철
가 나 김은하 김주영 김진미
김용산 김종균 김종영 김태주
김진숙 김혜경 네트라 백승현
마쉴루스 박씨마 백승현
서영철 상야베 사가르 양현수
윌리엄 에릭 마이클 스티븐 이강혁
이민영 이은일 이은정 이진이
이진희 임혜선 윤치연 정욱진
제인랑 존페이즈 체이치 최정현
하요경 황인신
- ◆ 전도사(파트)
강병주 강하람 강현구
강기웅 강병주 권대식 권예람
김상규 김진재 김성욱 김성웅
김승겸 김승만 김용배 김유성
김용민 김용산 김용태 김유식
김재식 김재승 김경희 김종민
김종아 김종호 김창호 김태용
김태원 김한국 김현식 김홍주
노규석 김지형 노희태 럼문 홍
문영재 박근범 박성은A 박성은B
박성전 박정중 박정호 배행산
백승우 백인규 백대성 서경남
송석근 송영동 송재호 신기섭
신경훈 신원식 신현민 스티브차
송동주 송현호 안시무엘 양성민
양진범 양재경 여성진 오 민
오은규 유인아 유현복 윤미아
윤현규 이강현 이기원 이기훈
이비오 이서진 이세영 이승민
이우람 이윤재 이재정 이찬우
이한규 임용성 장동원 장재원
전병천 전신익 전 진 전재표
정상훈 정성진 정승철 정한호
정현식 정희성 제지윤 조동욱
조병홍 조바울 조현수 최대홍
최성규 최성민 최영민 최홍준
최재윤 최중현 최혁중 추대식
카와무라 요시키 하성희 하정훈
한호수 한홍희 허원희 황신연

- 김 완 김용성 김 웅 김용배
김 원 김원규 김원준 김원중
김윤식 김의득 김이곤 김장철
김재욱 김재일 김종건 김종성
김종승 김주홍 김진국 김창욱
김철수 김태경 김하중 김현철
김형식 나상권 노재한 노홍규
류지영 문성기 문장국 문창호
문종실 문현구 박 공 박병익
박봉태 박상송 박석봉 박성근
박석호 박성국 박영태 박영배
박용국 박우형 박중현 박정민
박대성 박홍균 배 문 백남인
백승준 백호현 백홍기 상병선
서성렬 서진봉 서찬교 성창섭
손한기 송만석 송영범 송영태
송유영 송일섭 송재길 송창도
신만인 신영각 신우권 신현중
심상달 심재욱 심창규 심준보
안국영 안성영 안용태 안종인
안태환 양유식 양주현 양재학
엄태진 오성연 우광방 우승구
원우현 유병진 유병훈 유원영
유재환 유 행 윤기홍 윤성열
유지준 윤석우 윤영각 윤영섭
윤영오 윤현태 윤형주 이강범
이건재 이경찬 이관수 이광형
이국주 이기중 이길수 이남수
이동희 이두송 이만식 이무웅
이성기 이상욱 이상익 이상웅
이영세 이영철 이웅걸 이용하
이우곤 이윤대 이장로 이재경
이재규 이재준 이재호 이재진
이종순 이창남 이 철 이태환
이한열 이현조 이화영 이희주
임광순 장 광 장양희 장형준
전규영 전장하 정강무 정대서
정돈영 정문규 정영민 정보원
정승훈 정영열 정영희 정택탁
정재현 정하영 정희태 조규상
조성근 조성업 정희태 정교중
정호원 정호진 최도홍 주수일
주용일 차승철 차준근 차준한
천영우 최도성 최득린 최 명
최상근 최진성 최창규 최창수
최종길 최희영 편무호 한규희
한규종 한태종 한백진 한양희
한중태 한창성 한형식 함공식
함선호 허광수 허형석 호종일
홍기복 홍태표 홍범식 홍중철
홍정표 홍태남 홍영욱 홍용오
황지서 황재규

- ◆ 사무장로
강기홍 강동수 강부순 강상훈

- 강신익 강태욱 강태원 강은철
강대욱 강병철 광진석 광희준
구자영 권순형 권오습 권오혁
권혁은 금세종 김경돈 김경하
김동연 김도영 김동우 김동원
김두진 김만순 김병세 김병현
김동갑 김민찬 김병순 김병욱
김상규 김상집 김상철 김선호
김성규 김성중 김성진 김성철
김성훈 김승욱 김승관 김영환
김영순 김영욱 김영옥 김영한
김영환A 김영환B 김영환C
김영호 김우호 김이준 김인신
김정열 김정민 김정훈 김종민
김종만 김종호 김준규 김준영
김준용 김준홍 김지현 김지현
김지홍 김창성 김창원 김철민
김철주 김해기 김현주 김형걸
김형식 김형준 김희선 김화선
김하수 김효구 김해준 나광욱
나 영 나영록 남명현 남상길
남윤장 남정진 남주연 노경한
노기홍 노하수 라상원 류기범
명연찬 문상찬 문영기 문정식
박두원 박두원 박두원 박대호
박대현 박동현 박동원 박광민
박명률 박성규 박순길 박승우
박영현 박용규 박형식 박홍익
박일구 박일면 박일환 박재두
박중현 박지수 박치완 박혜한
박 현 박현규 박형민 박홍신
방찬중 배기영 배병석 배승호
서병화 서성현 서광재 성주명
손기철 손기태 손준래 손태용
송기진 송동섭 송창환 송호철
신기현 신동기 신부환 신민호
신 섭 신재영 신철우 신학철
신환성 신길섭 심천보 심효무
심희는 안동철 안준호 안성무
양 동 양성열 양석주 윤수민
양성식 양현열 오 명 오범규
오성택 오성훈 오성택 오이식
용내문 원종호 유봉국 유재훈
윤상철 윤석일 윤석주 윤수민
이경호 이경훈 이백운 이백규
이남식 이삼현 이상도 이상율
이상준 이상혁 이석일 이성신
이성일 이우만 이승배 이신준
이영근 이영환 이우경 이원장
이은일 이은일 이은일 이자형

- 이재광 이재준 이정구 이종길
이종우 이종철 이진택 이찬주
이종우 이태일 이학일 이해남
이현규 이홍선 임 훈 임병수
임상범 임정열 임채남 임현태
임호원 임창철 장경문 장경식
장광열 장규환 장문석 장성철
장우진 장정열 정영수 정석순
정광열 정영호 정상기 정석순
정연식 정영규 정영기 정영주
정영택 정영환 정용욱 정윤섭
정윤오 정원만 정용화 정일영
정제범 정진호 정찬희 정대경
제무성 조대식 조대의 조병환
조성준 조성현 조영재 조진호
조정구 주성대 주재광 진중규
차준근 최민철 최봉림 최석민
최성환 최용일 최용재 최주관
최현재 최형수 최호림 하상진
하주현 한동욱 한복규 한상규
한승만 한영만 한영서 한필규
합일성 합정철 허 경 하대행
허복만 허영남 허영환 허필우
홍승우 황병원 황상윤 황성룡
황성진 황윤일

- ◆ 명예장로
김종수 박동순 박용원 박찬구
이승규 이광만 이원로 이형상
장옥룡 정광택 정병재 박승건
지성현 채수삼 최창걸 홍순직
황용식
- ◆ 협동장로
강승모 김갑식 김정훈 김 준
남영태 류수광 권대현 박지은
박영규 양호승 우상근 이경희
정지석 주치수 최대화 최원호
최종훈 추교명 함지연 황재익
- ◆ 성가사
강내우 강순영 강중현 강혜영
김기태 김건주 김병우 김병오
김선아 김세일 김은혜 김경걸
김정환 김지현 김혜경 김형준
김희정 남윤창 문보람 박은혜
박영규 박정규 손창우 송성강
송정희 신수정 신준환 오성현
오지훈 유선애 윤은희 윤지현
이미선 이명근 이병철 이수정
이성민 이세미 이수연 임진성
조익현 정병문 전지영 홍정미
정필희 채미현 최경열 최영은
최윤석 최지선 최진아 최재영
최해경 최환희 홍용식

- ◆ 반주자

- 강영우 강예은 고은찬 김강리
김기아 김병성 김보라 김보름
김선경 김선혜 김성대 김수현
김슬기 김영찬 김은경 김은실
김은영 김은지 김지훈 김진수
김찬희 김현정 김형주 김효중
남궁진 남민우 남예철 노보하
노성희 노소라 노성희 노지영
문희정 박신희 박아령 박오섭
박윤진 박지훈 박주영 배영근
송효빈 신선호 신은혜 심현보
안소라 안지연 안호진 안희준
오우영 우경진 염주의 왕호준
유은혜 유재현 유종광 유지훈
윤정희 윤주순 윤진영 이 준
이강식 이슬기 이애리 이영훈
이예나 이예은 이지원 이지혜
임현우 장재우 장현호 정경미
정다혜 정우찬 정주희 정지은
정진우 조민지 조영태 천은진
최소희 최영균 최은미 최지훈
최희정 홍서영 황지영

- ◆ 명예장로
김성규 고성환 권우중 권오현
김재동 김재우 김준영 남영근
박호태 성한재 손정래 신술문
여훈필 유형민 이관표 이상현
이수성 이은창 이준상 장민용
정현주 조규배 조성민 조윤환
최정규 한상훈 허규희 홍관희
황용진 Henry Park Hyun Chang
- ◆ 명예장로
김용식 엄성국 윤부국
- ◆ 협동장로
강광일 김동민 김달수 김명훈
김연수 김요셉 김중수 윤창근
윤한주 김중식 임현식 오명진
정석환 최태화 최승호 최태영
주교명
- ◆ 성가사
고양숙 김성수 김수정 김용희
김진용 김홍규 남병호 박민규
박선영 박소연 박우람 송희경
엄지영 여훈필 엄혜숙 유기열
이정민 이정우 이종현 정영진
정현정 조정화 조요셉 홍현철
황애란 황진주

해외 온누리교회

- ◆ 담당목사
권영환 김도균 김철희 문영재
박신웅 서재범 이길탁 요시하라
마쉴루스 전현규 정호석 조준목
니시아마 신이치 하카마타 미키
후쿠자와 마키토
- ◆ 미주 OMA 담당목사
김철진 김형철 마크트 박태영
심상현 이민욱 이성권 이정엽
이중재 정장철
- ◆ 부목사
강일영 김기홍 김도일 김병성
김상훈 김성연 김성진 김인숙
김영봉 김정운 김진우 김창식
김향선 남진석 노경호 문성일
박대원 박중훈 박찬민 박원욱
박효빈 배성우 변범식 손 담
손미경 신기원 심재현 심형진
양진범 엄영기 우윤상 유병환
유영순 이경호 이미영 이성은
이성원 이승은 이은택 이우영
이정주 이형근 장이삭 장재홍
전상환 전인성 전홍현 정동윤
정용환 조수정 조철호 최성식
최철홍 허 민 홍동욱 홍성은
홍세반 홍 정 Joel Kim Joe Lee
Michael Lee
- ◆ 전도사

광고

로잔대회 사무행정 계약직 간사 모집
자격: 한컴 및 MS-Office 필수, 경력직 및 영어
가능자 우대
기간: 3~12월(총 10개월)
근무: 주 5일 9시~18시
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접수: 14seoul2024@gmail.com
문의: 070-4940-4242

포에버성가대원 모집
자격: 찬양을 사모하는 60세 이상의 온누리 남녀 성도
연습: 매주 수 10시, 일 2시 신관 101호 Act29실
문의: 010-4338-4151(타캠퍼스도 신청 가능)

온누리신문

등록번호 다-3802호
발행인: 이재훈
편집국장: 이인용
편집부장: 김남원
기자: 김현준, 홍하영, 김다애
140-026 서울시 용산구 이촌로 347-11
전화: 02-6959-0001 홈페이지: news.onnuri.org
온누리신문은 재생성지를 사용합니다

온누리복지재단

온누리복지재단 후원계좌
하나은행/573-910015-15105/(북)온누리복지재단
문의: 황찬범 간사(010-6209-3667)

서초구립중앙노인종합복지관 경로식당 봉사자 모집
내용: 경로식당 배식 등, 식사 봉사자 모집(개인, 단체 가능)
일시: 종식(11:00~14:00), 석식(16:30~18:30)
문의: 서민정 사회복지사(02-3474-6080)
※점심식사 제공, 정기봉사자 우대

시립용산노인종합복지관과 함께할 인재 채용
분야: 운전원(정규직), 조리보조원(계약직) 채용
내용: 운전원 대면면허 소지 필수, 조리보조원 조리사
자격증 소지자 우대
문의: 김혜지 과장(02-794-6100)
※자세한 내용은 문의 및 복지관 홈페이지 '채용안내' 확인

용산구립청파노인복지관 경로식당 봉사자 모집
내용: 경로식당 배식 및 정리
일시: 평일 10~13시(점심식사 제공)
문의: 문소연 사회복지사(070-4340-2542)

서초구립느티나무쉼터 원어민 강사 모집
내용: 서초점사에서 영어회화를 가르칠 원어민 영어 강사
분야: 영어회화, 여행영어, 실생활 영어
문의: 유정선 사회복지사(02-6953-1833)

재정

온누리교회협의의 현금 매뉴에서
모바일현금을 사용하실 수 있습
니다.

※ 모바일현금 특징
-이체 수수료 무료
-모든 금융기관 이용 가능
*애플의 앱스토어와 구글의 플레이스토어에서
다운하여 사용하세요.

상담

서빙고 온누리 상담실(선교관 지하 1층)
상담접수: 02-793-2997, 010-4215-3675
(화-금 오전 10시~오후 5시, 토-일 오전 10시~오후 3시)
면접상담: 신앙과 심리상담(개인, 부부, 아동, 청소년, 가족)
심리검사: 각종 심리검사, U&I(학습 성격 유형)진로 검사)
특수상담: 인터넷 중독 상담

양재 온누리상담센터(원형커피숍 자동문 안쪽)
상담접수: 02-570-7536, 010-4684-7536(문자전용),
상담예약 필수

개인, 부부, 가족, 아동, 청소년
화-금: 오전 10시~오후 5시, 일: 오전 10시~오후 3시
각종 심리검사 및 집단 치유 프로그램
법률 상담: 주말만 가능(예약 필수)
세무 상담: 월세 주말만 가능(예약 필수)

소천

2/23(금) 경기A 고 이선규 권사
2/23(금) 동대문중앙 신혜영 성도 모친상 고 김영자
2/24(토) 마포 손영미 집사 모친상 고 김양화
2/24(토) 양재A 이재혁 성도 부친상 고 이윤희
2/25(주일) 서초B 정유정 성도 모친상 고 이봉숙
2/25(주일) 강남E 고 박종영 성도
2/27(화) 서초C 여미아 권사 부친상, 이경남 집사 장인상
고 여인영
2/27(화) 이촌 김윤옥 성도 모친상, 김호정 성도 시모상
고 홍군자
2/27(화) 양천 김미향 집사 모친상, 최중환 집사 빙모상
고 김종래
2/27(화) 노원 박부경 선교사 모친상, 최현성 선교사 빙모상
고 조규남
2/27(화) 성북 이병숙 성도 자녀상 고 김대원
2/27(화) 관악금천 순현석 집사 부친상 고 손병권
2/27(화) 가정사역 김우석 성도 부친상, 유보연 성도 시부상
고 김영웅
2/28(수) 도곡 김소애 성도 시부상 고 이금우
2/28(수) 용산 박배복 권사 남편상 고 김대진
2/29(목) 서빙고 고 김민화 장로



INTERNATIONAL NGO

더멋진세상
better world

후원약정식

24년 3월 16~17일

너와 내가 만들어가는 더멋진세상



더멋진세상은 전세계 25개 국가의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들을 섬기며
긴급구호 활동을 돕는 국제개발 NGO입니다.

후원방법

현 장

일 시 3월 16~17일

장 소 온누리교회 각 캠퍼스의 주일예배 시
예배시간에 나눠주는 '더멋진세상' 후원약정서를
작성해 주세요.

온라인

일 시 상시 가능

후원안내

후원계좌 우리은행 1005-702-002535

(사)더멋진세상

문 의 02-2271-2246



정기후원



증액후원